

선진지역의 지역개발 사례연구
-해외연수 보고서-

2006. 5

충청남도

목 차

I. 연수 개요	1
1. 연수목적	1
2. 연수자	1
3. 연수일정	2
II. 연수 내용	3
1. 독 일	3
1) 독일의 일반현황	3
2)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	10
3) 시사점	22
2. 이탈리아	24
1) 에밀리아 로마냐 산업지구의 개요	24
2)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현황	26
3)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및 운영체계	28
4) 시사점	35
3. 프랑스	37
1) 프랑스의 신도시	37
2) 파리의 신도시 개요	38
3) 라 데팡스(La Defense)의 개요	39
4) 시사점	50
4. 영국	52
1) 영국 농촌의 일반현황	52
2)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54
3)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66
4) 시사점	71
5. 스위스	73
1) 일반현황	73
2) 제네바의 개요	76
6. 오스트리아	78
1) 일반현황	78
2) 인스브루크 개요	80

I.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선진국의 소도읍육성사업과 개발사례 현장방문으로 선진 개발기법 습득
- 소도읍육성 개발 관련 계획수립 및 발전방향 모색
- 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의 함양

2. 연수자

- 이영선(충남 도의새마을과장) 외 23명

소속	연수자
충남도청	이영선(도의새마을과장) 김수형(도의새마을과)
천안시	이광수(도시과) 박선화(도시과)
공주시	전경일(도시건축과장) 이승열(도시건축과)
보령시	이상현(건설과장)
논산시	최영준(건설과장)
금산군	한유탍(건설도시과)
연기군	오진균(건설과장)
부여군	이재진(도시과장) 김인태(도시과)
서천군	이향성(건설도시과장) 조남용(건설도시과)
청양군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김기현(건설도시과)
홍성군	손봉환(도시건축과) 주용태(도시건축과)
예산군	김학용(도시과) 정찬우(주민지원과)
태안군	박상현(건설도시과)
당진군	김중수(도시건축과장) 김응용(건설과)
충남발전연구원	윤갑식(책임연구원) 조봉운(책임연구원)

3. 연수일정

○ 연수기간 : 2006년 4월 16일 ~ 4월 26일(9박 11일)

일정	연수지역	비고
4. 16 ~ 4. 17	· 독일 : 프랑크푸르트, 브란츠부르크 로텐부르크	
4. 18	· 오스트리아 : 인스브르크	
4. 19 ~ 4. 22	· 이탈리아 : 베니스, 피렌체, 로마, 밀라노	
4. 23	· 스위스 : 제노바	
4. 23 ~ 4. 24	· 프랑스 : 파리, 샤모니	라데팡스 공식방문
4. 25	· 영국 : 런던	Countryside Agency 공식방문



[라데팡스 개발담당자와 기념촬영]



[Countryside Agency 담당자와 기념촬영]

II. 연수 내용

1. 독 일

1) 독일의 일반현황

(1) 자연현황

- 독일의 지형구는 북부의 평원지대인 북독일평야, 그 남쪽으로 고도 200~1,000m의 구릉성 산지인 독일중앙고지, 다시 그 남쪽에 펼쳐지는 구릉, 대지, 평탄지로 된 남독일 및 독일알프스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짐. 전역이 빙하퇴적물로 덮인 북독일평야는 서부에서는 사질(砂質) 토양의 평탄지를 이루어 저지대에는 소택지, 이탄지(泥炭地)가 펼쳐져 으며, 연안부에는 간척지가 조성되어 비옥한 목초지로 이용되고, 그 배후에는 메마른 농토와 하이데(Heide:荒地)가 펼쳐짐.
- 하이데의 남서쪽에는 중앙고지에 접하여 빙기(氷期)에 형성된 비옥한 퇴스가 퇴적되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 빙하의 퇴석구(堆石丘) 사이의 저지를 흐르는 하천은 동서방향의 운하에 의해 연결된 것이 많고, 따라서 독일 북부는 서단부에서 동단부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운하의 수로망으로 덮여있고, 중앙고지는 동서로 연속되는 1,500m 이하의 중위(中位) 산지군으로, 라인 협곡 및 베저강(江)·엘베강(江)의 곡지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라인 고지에는 라인강(江)과 그 지류 모젤강(江) 등에 의해 빙겐에서 본에 이르는 구간의 라인 협곡과 같은 협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
- 라인 고지와 튀링거발트 사이에는 고지와 저지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저강 수계가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되고 있으며, 남북방향의 곡지는 프랑크푸르트·카셀·하노버 등 기타 도시를 잇는 교통로가 되어, 그들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남독일은 서쪽의 보주산맥에서 동쪽의 뢰머발트까지 펼쳐지는 지역으로 북쪽의 중앙고지, 남쪽의 독일알프스 사이에 있음. 마인강(江)·네카어강(江) 유역은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의 하나로 기후가 비교적 온난 건조하여 포도·밀의 산출이 많음. 네카어강 유역의 슈투트가르트·하이델베르크, 마인강 유역의 뉘른베르크·밤베르크·뮌헨·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가 발달. 바젤에서 마인츠

에 이르는 라인 곡지는 단층에 의해 형성된 대함몰(大陷沒)지대, 즉 라인 지구대임.

- 라인강 동안에서는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최고봉 펠트베르크, 1,493m)와 오텐발트가 급애(急崖)를 이루고, 서안에서는 보주산맥·하르트산맥(최고봉 도너스베르크:687m)이 급애를 이룸. 단층운동에 수반되는 화산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라인 지구대에는 카이저스툴(567m) 등의 화산산지나 바텐바덴 등 온천지도 많음. 보름스에서 마인츠를 거쳐 빙겐에 이르는 구간의 곡지는 퇴스 퇴적지로,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역이 되고 있으며, 주로 포도재배에 이용.
- 독일알프스 지역은 바이에리시알펜과 알프스 전지(前地)로 불리는 고원으로 이루어짐. 고원 남쪽은 보덴호(湖)와 바이에리시알펜 지역이고, 북쪽은 슈베비시알프·프랭키시알프 및 보헤미아 지괴의 남서연부(南西緣部)가 되고 있음. 독일의 최고봉 추크슈피체산(2,963m)이 이 산중에 있으며, 산간·산록에 많은 빙하호가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그 경관이 뛰어나.



[그림 1-1] 독일의 농촌경관

(2) 경제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른바 ‘서독 경제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 부흥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경제를 좌우할 만한 경제력을 축적. 서독 경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에 기초를 두는 것. 독일은 1994년

현재 GNP 기준으로 세계 제3위이며 무역액 기준으로 세계 제2위임. 국민총생산의 1/3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서방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 독일은 1975년 창설된 서방 경제선진국 정상모임인 G7의 일원이며 또한 독일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통합에 프랑스와 같이 중추세력을 형성.

- 통일 후 독일 경제는 큰 혼란을 겪음. 통일 당시 동독주민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1/5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기술의 상대적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및 사회기반시설의 낙후로 동·서독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됨.
- 독일정부는 구동독경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① 시장경제질서 도입, ② 시장기능과 개인창의력 발휘 여건 조성, ③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한시적 국가재정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신생연방주 투자지원, 기업도산·대량실업에 대처,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장경제질서 구축에 필요한 구서독 측 관료 및 사법요원의 파견 등의 조치를 도입함. 이러한 정책노선의 기본방향은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여 사유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1990년 6월 발족한 신탁관리청(베를린 소재)은 독일정부의 기본정책에 부응하여 국유재산의 사유화, 경쟁력 확보 정상화에 목표를 둠. 신탁관리청 산하의 관리대상으로는 8,500개 이상의 국유기업, 국영 도소매업·서비스업, 사회주의통일당(SED) 및 구동독 정부기관의 부동산, 구인민소유협동농장(LPG) 등으로서, 사유화대상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수는 410만 명으로 구동독 전노동자수의 45%에 달함. 원래 공매절차를 고려하였으나 기업의 부실정도가 지나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음. 통일 후 신생연방주의 산업입지 여건은 막대한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리함.
- 1990~1993년 신생연방주에 투자한 액수는 공공·민간부분을 합쳐 3110억 마르크로 한 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을 상회하였으나, 이 액수는 같은 기간 구연방주에 투자한 액수의 16.3%에 지나지 않음. 과거 2차산업부문이 40%가 넘는 산업구조가 2차산업 34.8%, 3차산업 54.9%로 행정·통신·교통·상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음. 신생연방주의 소득증가, 구매력증가는 뚜렷하여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실업률이 구연방주보다 2배 정도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러나 1999년 후반부터 외수 확대와 유로화 하락을 배경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서 경기가 회복. 2000년에는 수출의 호조에다가 설비투자, 개인소비도 확대되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를 달성함. 실업률, 특히 구서독 지역의 실업률은 다소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1년 2월 말의 실업자수는 약 411만 명으로, 실업률은 10.1%(구서독 8.0%, 구동독 18.9%)임.

(3) 교통

- 독일은 통일 후 구동독의 '제국철도'는 국철에 통합되었으며, 철도종사자수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경영합리화로 감소추세. 1998년 현재 철도의 총영업거리는 4만 900km인데 이중 1만 6000km가 전철. 도로 총연장은 65만 6140km에 달하고, 이중 고속도로로는 1만 1400km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 국도에서는 100km/h로 속도,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없음. 독일 국적선은 1066척, 5680만t에 달함.
- 독일의 주요항구는 함부르크, 브레멘,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 뤼베크, 로스토크 등인데 냉전시대에는 유럽의 주요 무역항의 기능을 암스테르담·로테르담에 빼앗겼으나 탈냉전시대를 맞아 북해 연안의 항구들이 중부유럽, 동부유럽 국가의 배후지를 얻게 됨으로써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임. 내륙수로 또한 발달하였는데, 총연장은 7500km임. 국제수로로는 라인강, 1994년 개통된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들 수 있음.



[그림 1-2] 프랑크푸르트의 중앙역 전경

(4) 관광

- 독일은 19세기에 민족국가로 등장하기 이전의 수백 년 동안 수십 개의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풍부함. 유서깊은 건축물, 도서관, 박물관, 정원, 극장, 향로축제 등은 문화애호가에게 더없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개발을 할 때에도 문화유산 보전에 노력하고 있어 도시경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음. 라인강 하류의 루르 지방은 새로운 도시시설과 근대적인 공장 등 인공적인 요소가 관광대상이 되는 곳이고, 그 남쪽의 아이펠고원은 구릉과 숲의 경관이 뛰어난 곳임.
- 라인강 중류로 흘러드는 모젤강 계곡은 아름다운 산지와 포도원의 경관으로 유명. 모젤강과 라인강의 합류점에 있는 코블렌츠에서 약 100km 상류의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강 중류는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로, 하안(河岸)을 따라 포도원이 이어지면서 군데군데에 역사 깊은 고성(古城)이나 전설 얹힌 로렐라이의 언덕 등이 정서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라인강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안(右岸)에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가 나타나는데 그 주변에는 훌륭한 숲과 온천이 많고, 또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남부독일의 농촌풍경을 간직하고 있음.



[그림 1-3] 남부독일의 고성

- 독일과 스위스 국경에 걸쳐 있는 보덴호(湖) 주변과 남독일의 알프스 지방은 높은 산악풍경이 장엄하고, 특히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을 비롯한 휴양지와 겨울스포츠의 중심지가 많음.

-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뷔르츠부르크에 이르는 구간에는 관광도로가 개통되어 중세의 생활풍속과 건축물 등을 관광할 수 있고, 또 이곳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목조각품, 바이올린, 충포 등이 제조되어 특산물이 되고 있음. 고슬라를 중심으로 한 하르츠산지도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고 엘베강의 하항 함부르크는 역사 깊은 상공업도시로 특이한 도시경관을 보여줌.



[그림 1-4] 뷔르츠부르크의 고성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에는 많은 호수와 퇴석(堆石)이 산재하고 평지에 펼쳐진 숲이 아름답음. 함부르크 남쪽의 뤼네부르크 주변이나 프리슬란트 주변에서는 히스가 무성한 북부 독일의 황량한 들판의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음. 또 베를린에는 오래된 독일과 새로운 독일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시설들이 많음.
- 1991년 14세 이상의 독일국민 70%가 남부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최소 5일 이상의 휴가여행을 나가 관광지출비용은 관광수입비용을 훨씬 능가함.
- 이는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사협약에 의해 대부분의 경우 연 6주 이상의 휴가를 인정하고 추가로 휴가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5) 사회보장제도

- 독일은 일찍이 1880년대에 포괄적인 사회보장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사회 보장 구조가 견고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함. 시장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음. 현재 국민총생산의 1/3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려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음.
- 사회시장경제의 주요원칙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소유는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음. 노약자인 경우나 실업 또는 사고로 인한 취업 불능상태, 또는 파산했거나 더 나은 직업선택을 위해 재교육 중인 경우에도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곤란을 면할 수 있음. 또, 의료보험(인구의 약 90% 가입)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 연금제도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사회 내에서 연대차원의 상호부조개념. 사회보장제도에는 모든 아동에게 지불되는 아동수당, 주거수당, 극빈자에게 주는 추가수당, 전장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출산 후 3년까지의 부모수당, 장애인 수당 등도 포함.

(6) 문화

- 독일의 문화중심지는 특정한 몇 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난날의 분권주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각각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일 문화의 특색.
- 유명한 극장으로는 도이치·함부르크·베를린·뒤셀도르프·만하임·뮌헨·드레스덴극장 등을 들 수 있음. 현재 열리고 있는 중요한 음악행사로는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음악제, 가을철의 베를린 음악제, 할레·괴팅겐의 헨델 음악제, 본의 베토벤 음악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제, 뮌헨·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슈트라우스 음악제 등이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밤베르크 교향악단·슈투트가르트 실내 관현악단·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등은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서 명성을 얻고 있음.
- 독일의 문학·예술은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꽃피었던 18, 19세기 및 바이마르공화국시대에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적으로 명

성을 얻은 문화인·예술가가 별로 배출되지 않음. 독일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학가로는 F.카프카, T.만, R.M.릴케, B.브레히트 등을 꼽을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설가로는 H.T.벨, G.W.그라스, 극작가로는 지그프리트 렌츠, 페터 바이스 등의 활약이 널리 알려짐.

- 독일은 출판과 도서의 나라로서 매년 10월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열림.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대담프로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며 화려한 쇼프로는 별로 없고 스포츠중계가 많고 보도프로 비중이 큼. 독일에는 약 3,500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1998년 약 1억 3500만 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였음.

2)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

(1) 개요

- 유럽 국가와 독일에서는 60~70년대의 경제적, 사회적 범주에서 다루었던 관광 정책으로부터 환경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관광정책을 추구하는 추세.
- 독일의 전반적 관광정책은 공간계획(유럽, 연방공간계획, 주발전계획, 광역계획, 도시계획)과 전문계획(교통계획 등)을 토대로 자연과 문화의 잠재력을 고려함을 기본으로 함.
- 농촌관광 정책은 별개의 부서나 규정 등이 없이 아래 소개된 정책들이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며, 독일농민연맹(DBV)을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독일농업협회(DLG)와 각 주가 밀접하게 협조.

(2) 독일 연방정부 관광정책

- 독일의 공간계획법 제2조에는 공간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무엇보다도 농촌이 자연친화적 휴가, 휴식지역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을 강조. 관광산업을 위한 기본 정책 프로그램은 이미 1975년 부터 아래의 5개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
 -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확고히 함.
 - 독일의 관광산업의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

- 국민의 관광에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가능성을 향상.
- 관광산업을 국제적으로 공동 활성화.
-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개선.
- 독일의 관광산업은 주로 경제부처와 건설부가 중심이 되어 각 주의 해당관청과 밀접하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함.
 - 경제기술부의 광역촉진정책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연방정부와 각 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구조개선정책(GA-Gemeinschaftsaufgabe von Bund und Laendern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ftsstruktur)은 개인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 이는 관광교육, 기반시설-특히 새로운 생산품과 서비스업종에 투자를 집중 (1991년에서 1999년까지 총 투자액 16,307백만 DM 중 숙박업에 개발지원금 3,729백만 DM). 물론 여기에는 관광산업에 관련한 사회간접시설(휴양관, 공원, 수영장, 자전거, 인도) 건설 등의 지원금도 포함.
 - 1991년에서 1999년 중반까지 관광시설물에 투자한 총 6,938Mio. DM중 GA의 지원금은 4,683Mio. DM이 넘었음. 경제기술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관광프로젝트 촉진정책을 추진.
- 연방정부의 각 기관마다 각각 책임이 다르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연방정부 산하에 독일관광조합, 독일관광연맹 등이 있으며 각 주, 도시와 밀접하게 관광산업을 추진.
- 농림부의 농업관광촉진정책
 - 농업구조와 산간지역보호 향상정책(GA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Kuestenschutzes)이 주로 해당한다. 이는 유럽연합과 깊이 연관.
 - 재정지원은 유럽연합과 독일 연방정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며 농촌관광 산업 분야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3) 주정부

- 독일은 지방자치가 발달된 대표적인 나라이므로 관광정책 또한 각 주마다 공간적 구조에 맞게 추진. 특히 산간지역, 포도 농사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짐. 농촌관광 정책은 연방정부의 소비자보호, 영양 및 농업부(BMVEL)에서 주로 담당.

■ 농촌관광 관련 규정

- 독일에서 농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은 없음. 독일은 전 국토가 연방 건축기본법(Baugesetz Buch-BauGB)에 의하여 지구상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해 허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임.
- 특히 농촌지역은 연방 건축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소위 농촌지역은 외곽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토지용도 변경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됨.
- 관련 법규로는 공업법(Gewerberecht), 음식점종관련법(Gaststaetterecht), 세금법(Steuerrecht), 노동법(Arbeitsrecht), 위생 관련 세부규정(hygienische Verordnung) 등이 있음. 이들 법은 농촌관광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법임.
- 특히 일반 도시지역이 아닌 낙후지역인 농촌관광지역은 토지이용변경, 건물용도변경 등이 매우 엄격하여 농촌관광 산업에 제약요인이 되기도 함.
- 또한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총 6개의 법규정과 그 외에도 도시 자체 별로 해당되는 법, 규정들을 합하면 너무 복잡하여 2년 전부터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의 용도변경(Urlaub auf dem Bauernhof), 즉 숙박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위의 법에 관련되며, 농촌지역에 호텔이나 음식점 허가는 지방자치단체(마을 최소단위)의 효력이 강해 인가가 어렵게 되어 있음.

■ 농촌관광 지도자와 시설물

- 농촌관광 지도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현재 독일 농촌관광 지도자는 대부분 여성들. 이 분야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농업분야 교육을 받은 자이거나 관광분야(주별로 교육 실시) 교육을 추가로 받은 자가 대부분.
- 농촌관광업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일반 규정(위에 언급한 법)에 의거해야 함. 단지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는 독일관광연맹(DTV)이 독일농업협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며, 이는 홍보책자나 인터넷 등에 홍보.

■ 숙박 형태

- 다른 관광업종과 다르게 농촌관광업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 민박이 주를 이룸. 1991년 12.7백만 명의 숙박객에서 2001년에는 27.4백만 명의 숙박객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



[그림 1-5] 농촌지역 숙박업소

(4) 독일의 농촌관광 현황과 전망

■ 독일 농가민박의 일반 현황

-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내 농가민박은 2001년 현재 27.4백만 숙박으로서 매출 총액은 약 10억 유로에 해당.
- 1999년 농업통계연감에 의하면 독일의 농가민박은 총 14,746개소로서 농업종사자의 3.12%가 농가민박을 겸함.
- 농업종사자수와 비교하여 볼 때 농가민박비율이 높은 주는 북독의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6.49%), 남독의 바이에른주(4.62%), 중독의 라인란트-팔츠주(3.97%), 동독의 메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3.44%)를 들 수 있음.
- 농가민박업소수를 비교하면 바이에른주가 7,131개소로서 독일 전체 민박업소의 절반(50.3%)을 차지하며, 바덴뷔템부르크주가 2,510개소(17.7%)로 두 번째, 라인란트-팔츠주와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가 각각 1,410개소 (9.9%), 1,343개소 (9.5%)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농가민박의 특성
- 농가민박은 여름철에 집중되며 평균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농가와 직접 예약.
- 농가민박 이용자의 66%가 어린이를 데리고 방문하며 가족형, 자연체험형, 휴

식형 관광행태를 보임.

- 1회 여행하는데 따른 평균 경비는 1인당 607유로로 상대적으로 저렴.
- 농가민박이용자의 특성
 - 가장 선호하는 활동: 지역답사, 지역음식, 긴장완화, 편안한 잠
 - 가장 중요 방문 동기: 스트레스 해소, 해방감, 자유시간, 레크리에이션
- 농가민박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 1.청결/2.합리적 가격/3.현대식 화장실/4.넓은 방과 좋은 분위기/5.분위기 있는 가구/6.개인 서비스/7. TV · 라디오/8.부대서비스/9.편안함



[그림 1-6] 독일의 농가

■ 농촌관광산업의 전망

-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지난 2001년 광우병사건 등으로 약간 주춤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발전. 복잡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은 도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인들의 자연에 대한 의식변화와 평온하고 깨끗한 기후를 즐기려는 욕구 등의 관광의식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발전.
-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공간적, 행정적 범위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한 홍보산업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가 농촌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5) 독일의 농촌관광 담당 기관 및 단체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농촌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이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농촌관광을 담당.
- 독일에서 특히 농촌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주는 남부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부르크주, 북부 독일의 쉔레스비히홀스타인주와 니더작센주를 들 수 있음. 독일 전체 차원의 대표적인 농촌관광 분야 민간조직은 독일농민연맹과 독일농업협회를 들 수 있음.

■ 독일농민연맹 산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협의회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fuer Urlaub auf dem Bauernhof und Landtourismus in Deutschland e.V.)는 농촌관광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독일농민연맹 소속 기구. 주 정부 차원 및 지방 차원의 농촌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괄.
- 협의회는 농가민박을 촉진·홍보하고 농가민박 종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주 차원의 관련 단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설립.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는 14개 단체회원(12개 주별 지역조직과 2개 민간조직)으로 구성. 2001년말 현재 10,125개의 민박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2개 주 소속 회원은 5,431개 업소(53.6%), 독일농업협회(DLG) 소속 회원 2,070개 업소(20.4%), 농촌출판사산하 농촌휴가센타 소속 회원 2,624개 업소(25.9%)로 분포됨.
- 후원회원은 독일농민연맹, 독일여성농민연맹, 독일라이파이젠연맹(라이파이젠은 독일의 유명한 농정가 이름), 농업회의소 중앙회, 국민&라이파이젠은행의 연방연합, 독일 스파프카세 및 지로 연합 등 5개 단체. 이들 후원 단체는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활동을 재정적 및 내용적, 조직적 측면에서 지원함.
- 연방협의회의 최근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계간 뉴스레터 “Land in Sicht” 발간: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에 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매력적인 농가민박 소개. 시의적절한 테마에 관해 직접 언론을 상

대로 보도자료 제공. 회원들을 위해 독일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 및 독일 관광연맹과 협력하여 손님의 접대, 손실배상, 예약취소 사유 등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 농가민박상품의 경품행사 참여 : 독일농업중앙마켓팅사(Die Cetnrale Marketing-Gesellschaft der deutschen Agrarwirtschaft)와 협력 경품제공행사 진행. 식품소매업체의 판촉행사시 1주간의 2인 농가민박 관광상품을 경품으로 제공.
- 브로슈어 발간: 독일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업소에 관한 카탈로그의 체계적 분류 이외에 2개의 특별한 안내 브로슈어 발간·“농촌-휴가-농가”: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에 답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의 브로슈어와 카탈로그를 분류한 리플렛·“휴양이 체험이 되는 곳”: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을 촉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브로슈어.
- 인터넷을 통한 농가민박 정보제공
 - 홈페이지 주소 : www.bauernverband.de
 - 독일의 관광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농가민박업소 소개 및 예약 안내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매년 겨울 베르린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농업박람회인 “녹색주간”에 참가하여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에 관한 전시·홍보 및 직접 예약할 수 있게 함. 2001년에 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제2회 유럽 농촌관광 포럼에서는 연방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독일의 농촌관광에 대해 소개.

■ 독일농업협회

- 독일농업협회(Deutsche Landwirtschaft-Gesellschaft e.V., DLG)는 18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중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독일농업협회는 농촌의 생활과 농가의 수입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활동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근래 농업 관련 전시회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음. 특히 닭고기·돼지고기제품(1975년부터), 농업기계 및 부속·부품(1985년부터), 축산품(1989년부터), 낙농기술 및 식품가공기술(1988년부터) 등에 걸친 4개 분야의 전시회를 모두 국제적 규모로 기획.
- 독일농업협회는 ‘농가에서 휴가를’사업(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숙박시설 운영이나 품질기준에 대해 지도.
- 품질보증마크 인증제도의 실시

- 1972년부터 농가민박에 대한 품질보증마크제도를 실시. 품질보증마크의 교부는 국립특허기관(RAL)이 인정한 'DLG-점수' 마크에 관한 기본 규칙에 따라 각 지역의 담당 위원회를 통해서 행해짐. 위원회는 최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 위원은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농협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진흥 관계자, 관광협회, 금융기관, 호텔, 음식점 협회, 소비자단체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함.
-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결정 통지후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이의를 제기. 이 경우 DLG는 심사를 다시 할 수 있음. 이 결과가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결과 통지 후 14일 이내에 중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
- 품질보증마크는 최초 교부일로부터 3년간 사용이 인정. 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재심사에 합격해야 함. 재심사 결과 불합격될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
 - 민박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 개별 휴양주택 및 객실
 - 서비스 제공 및 여가분야
 - 환경기준 및 안전측면
- DLG는 농가민박에 들어섰을 때 손님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해 평가. 독채는 거실, 침실, 요리실 및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개별 객실은 방안에 화장실을 함께 두어야 한다는 사항 권장. 편안한 침대, 넓은 면적, 분위기 있는 체류공간은 기본. 환경 분야의 예를 들면 쓰레기분리수거, 탄력적인 수건교환, 개별포장의 금지 등도 실천.
- 특히 농촌에서의 휴가가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높은 가치. 예를 들면, 친절한 분위기, 개인적 시중, 다양한 여가시설 및 농촌 관광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한 DLG는 유럽 표준 기준인 DIN EN 45011 및 DIN EN 45013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마크의 질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독일농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인터넷상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DLG “농가민박/농촌호텔에서 휴가를” 카탈로그 여행안내서
 - 승마 애호가를 위한 여행 안내서 “안장위의 휴가”
 - DLG 포도 여행 안내서 “포도원에서 휴가를”

- DLG 전통과 매력이 있는 휴가를 위한 여행 안내서 “농촌에서의 휴가”
- www.landtourismus.de 홈페이지를 통해 DLG 검증을 받은 민박을 비롯한 농촌숙박시설의 소개.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로 소개. 주변지역에 대한 설명, 여행안내, 할인 또는 기획 여행상품 및 여행코스계획 등 소개.
- 2003년 발행된 “농가민박/농촌호텔에서 휴가를 2003” 여행안내서 가격은 9.9 유로화로서 서점, ADAC 사무실,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구매. 전 독일에 걸쳐 2,000곳의 검증된 농촌숙박업소를 사진과 글로 안내. 안내서는 주별, 관광휴양지역별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DLG에 의해 등급화되고 각종 시설을 심볼로 표시해 소비자가 손쉽게 민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됨. 예를들어, 어린이보호, 장애인 배려 시설 여부, 캠핑 가능성 등.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테니스, 골프, 승마, 낚시, 또는 사냥 가능성 등을 심볼로 표시하고 있음.
- DLG 마크를 부여받은 민박의 시설 등급은 호텔과 같이 별의 개수로 표현하여 손님이 쉽게 구분. 민박의 등급은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회의회와 독일관광협회의 협력하에 매김.
- 등급은 5단계로 나누어지며 3년간 유효. 농가민박 종사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의 현지 실사를 거쳐 DLG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독일관광협회의 기준에 따라 숙소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음. 별 두 개의 숙박업소 등급을 획득하고 농가와 농촌 분야에서 정하는 기준 즉 민박종사자의 자질, 여가, 서비스,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준을 만족시키면 DLG 보증마크 부여.
- DLG 보증마크를 취득한 농가민박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매년 개최하는 “DLG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의 참가 기회
 - ADAC(자동차클럽)와의 협력: ADAC의 회원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수혜
 - 광역 및 지역내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회의, 세미나, 업체 견학)
 - 뉴스레타 또는 출판물을 통한 생생한 정보의 제공
 - 무료 홍보 및 업무수단의 이용(예: 관광·휴양객들을 위한 팜플렛, 예약확인증, 우편엽서 등)
 - 약간의 실비만으로 홍보수단의 이용(예: 편지, 엽서, 자동차 스티카, 그림책, 작은 천주머니 등)
- 우수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
 - 경연대회의 취지

- DLG 수상을 받은 민박/농촌호텔에서 숙박은 질 좋은 숙박 가능성 외에도 농업, 지역의 특색, 자연을 알게 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광휴양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박/농촌호텔 운영자는 마을의 이웃 주민, 식당 주인, 수공업종사자, 문화 및 여가시설 운영자와 함께 다양한 휴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경연대회는 민박/농촌호텔 운영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발굴, 개발할 것을 요구함.
- 경연대회 조건 및 방법
 - 참가자격: DLG “농가에서 휴가를” 품질보증 인정을 받은 민박업체와 “농촌휴가” 인정을 받은 민박업체
 - 평가항목: 농가체험, 농업에 대한 정보, 식사와 즐거움, 자연의 발견, 지역과 지역 주민 알기, 생동감, 숙박 체험 등 7가지 분야
 - 초안 심사후 독립적인 전문심사위원회에서 10곳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 2002년 경우 4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게 심사: Ursula Schoercher(독일 여행센타 DZT 의장), Christa Off(독일농민연맹 산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회의 회장), Gabi Schwall(헤센방송 기자), Juergen Kuetemeyer박사 (trio 커뮤니케이션 & 마케팅 유한회사)
 - 수상자는 상장을 수여받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며 다음 DLG “민박 및 농촌호텔에서 휴가를”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www.landtourismus.de에 소개. 수상자를 위한 홍보는 전문적인 홍보업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



[그림 1-7] 독일의 농가민박 전경

■ 농촌휴가센터(Zentrale fuer den Landurlaub)

- 란트슈리프트 출판사(Landschriptsverlag)는 농업출판사의 자매회사로서 1955년 베를린에서 창업해 1972년에 본으로 사무실을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음. 농촌휴가센터는 란트슈리프트 출판사 소속의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민간기구이며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의 농촌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여행 안내서 출판.
- 농촌휴가센터의 가장 큰 기능은 농가민박 종사자와 소비자를 중개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체계적인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 출판사는 "손님과 농가(Gast und Hof)"라는 독일 농촌관광 관련 유일의 전문잡지를 발행. 8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장은 Hermann Bimberg씨 임.
 - 농촌휴가센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 농가민박/농촌관광여행안내서 발행, 농가민박/농촌관광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교육 등 농가민박/농촌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구로 홈페이지(www.bauernhofurlaub.com)를 운영.

■ 농촌휴가센터의 농가민박 데이터뱅크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분야의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뱅크로서 약 4천개의 농가민박/농촌숙박업소를 상세히 소개. 주로 독일의 농가민박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이웃 나라들도 아울러 소개. 홈페이지에서는 독일의 농가민박을 관광휴양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외국의 민박도 검색가능, 각종 심볼에 의해 검색 가능.
- 농가민박은 4등급으로 구분. 각 민박은 30개의 심볼로 표시되어 있어 손님들이 민박의 세부 사항을 쉽게 구분.
 - 심볼의 종류는 식사제공 여부, 포도원 여부, 노인에 적합한 시설, 어른없이 아이들만 보내도 보살펴 주는지 여부, 유아 관련 서비스,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 애완동물 수용, 농사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캠핑 가능성,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룸, 테니스, 승마, 자전거 대여, 사냥, 어린이놀이터, 별장, 탁구, 낚시, 겨울 스포츠 가능성, 단기숙박 가능 여부, 선텐시설, 유기농업, 농촌관광센터의 책에 나오는 보너스쿠폰을 받는지 여부, 어린이 파티, 농산물 직거래, 농가카페,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 등.

■ 손님이 추천하는 우수 민박업소 선정

- 농촌휴가센타는 매년 농가민박을 찾은 손님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손님이 추천하는 우선 민박업소”를 선정, 발표.
- 2002년 우수 업소의 경우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400여 농가민박을 찾은 45,000여 명의 관광휴양객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표를 작성. 설문조사항목으로는 숙소의 시설, 여가시설의 제공, 서비스, 식사 및 음료 등이 포함. 12개 주의 대표적인 농가민박업소 12개를 선정해 홈페이지, 여행안내서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

■ “농촌선택 -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주택”

- 성공적인 농촌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휴가센타의 주도하에 농촌관광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1994년 설립된 공동 마케팅 브랜드.
-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농가민박
- 손님을 친구처럼 보살피는 농가민박: 예를 들면, 손님 도착일에 맞추어 냉장고에 물건을 채워 넣는다든지 부모가 우유 젓꼭지를 분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대응 우유젓꼭지를 구비하고 있다든지 하는 정도로 완전한 손님 위주의 사고를 하는 민박주인
- “농촌선택”은 근래 언론기관으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예를들면 ARD TV, 잡지 파밀리에 운 코, 엘터른, 디 벨트, 디 차이트, ARD 여행잡지 등에서 크게 보도.
- 현재 96개의 농촌휴양주택이 회원으로 가입됨. “손님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는 철학을 따름.
- “농촌선택”의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인상적인 여행안내서의 발행: 제목은 “농촌에서 재미를-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주택(Lust aufs Land - Europas schoenste Ferienhoeft)”.
 - 협력파트너, 서점, 인터넷을 통한 여행안내서의 판매
 - 비수기에 주로 독창적인 마케팅 아이디어의 집행
 - 기존의 농가민박 데이터뱅크 홈페이지(bauernhofurlaub.com)에 소개하고 농가 자신의 홈페이지 링크
 - 인터넷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업체와 함께 시스템의 구성
 - 신문·잡지 등 인쇄미디어, 라디오, TV 편집진과 함께 협력

- 독일의 체험지도의 개발
- 마케팅 및 법률 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
- 세미나를 통한 직업교육 및 경험 교환
- 관광휴양 관련 기관·단체의 연락처 공동 이용
- 손님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아이디어의 판매: 우유젓꼭지서비스, 도착시 냉장고 서비스, 어린이생일파티, 생일쿠폰 등

3) 시사점

- 소도읍 육성사업의 주요사업 가운데는 관광을 테마로 하는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선진지역의 농촌관광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음.
- 농촌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련부서의 통합적 운영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광분야와 농업분야 및 환경분야가 상호보완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다양한 농촌관광사이트가 선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에 보다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우선, 국가차원에서 농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임. 특히, 농산물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정책의 한 분야로 집중적인 고찰이 필요함.
- 그리고, 이러한 육성과 지원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인재육성이 필요함.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서 서비스제공자를 겸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농촌관광은 직접 접해보아야 그 참된 면모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의 장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농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차별성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임. 농가의 건축물 형태나 농업의 다양화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새로운 관광장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무분별한 농어가주택의 난립으로 지역적 특성이 없는 국적없는 건축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농촌은 농촌다움을 잃어버린 단순한 숙박촌에 지나지 않음.
-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잘 보존하고 보다 깨끗하고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개발도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에 있어서는 새로운 농산물, 새로운 공간 등을 창조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함.
- 이러한 노력을 IT강국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마케팅한다면, 한국의 농촌지역이 세계적인 농촌관광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거듭날 것임.

2. 이탈리아

1) 에밀리아 로마냐 산업지구의 개요

-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 반도 북동부 포강유역 평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22,000km²에 국가 총 인구의 약 7%를 조금 상회하는 4백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이 지역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해온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임.
- 세계 2차대전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섬유,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 산업이 지역 산업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고용규모면에서 볼 때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 전체고용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인구의 비율은 농업 8.6%, 제조업 35.1%, 서비스업 53.3%로 구성되어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지난 10년동안 EU의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총생산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이 기간 동안 지역 실업률도 EU회원국 15개국 평균의 절반수준을 유지해 왔음

[표 2-1] 에밀리아 로마냐의 산업지구

산업부문	지역	고용자 수	중소기업 밀도(%)	지역의존도
섬유의류	Carpi(MO)	12,692	99.30	높음
신발	Fusignano(RA)	666	92.90	높음
신발	S, Mauro Pascoli(FO)	3,000	93.70	높음
모터사이클	Bologna	2,378	82.90	낮음
세라믹 제품	Modena-ReggioEmilia	22,000	55.70	높음
포장기계	Bologna	7,140	20.00	낮음
농기계	Modena-ReggioEmilia	17,965	85.20	높음
Boncomical 제품	Mirandola(MO)	2,300	85.00	보통
목재생산기계	Rimini	1,345	87.20	낮음
목재생산기계	Carpi(MO)	1,155	77.20	낮음
실내장식가구	Forli	900	97.00	낮음
기계장비	Piacenza	800	20.00	낮음
식품제조	Parma	9,239	98.10	보통

출처 : DelNet & ASTER, 2002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1인당 GDP가 약 25,000유로 정도로써 이탈리아 국내 총생산액의 10%와 총수출의 12%를 담당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의 지역 공산품 수출 성장률은 45%, 서비스 수출의 성장률은 52.4%였으며 이 기간의 수출 증가는 기존의 유럽시장 외에 미국과 동남아시아 및 기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의 수출성장률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큼.
- 그리고 지역 생산시스템의 세계화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되어 지난 5년 동안에 해외직접투자가 296.7% 증가하였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이탈리아 전체평균 154.5%의 2배에 해당함.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음. 13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기 다른 산업에 특화된 산업지구들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음.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까르피(Carpi)를 중심으로 한 섬유 및 의류산업지구와 모데나(Modena)와 레지오 에밀리아 (Reggio Emilia)를 중심으로 한 세라믹 제품산업지구 및 농기계 산업지구를 비롯하여 신발산업, 목재생산기계산업, 실내장식가구산업, 식료품산업,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지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지역 제조업 노동자(78,108명)의 64%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70% 이상인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제조업 고용인력의 단지 7%만이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제조업 고용인력을 감안한다면 99%이상의 고용인력이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지구별로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소기업의 비중이 90%이상인 산업지구가 전체 13개 산업지구 중에서 5개이고, 이 가운데 의류산업지구인 까르피, 신발산업지구인 푸시나노와 산 모로 파스콜리, 세라믹과 농기계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등은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지역생산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 소기업들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경제의 중추는 중소기업들임. 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된 산업지구내에 집적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으로 한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화는 이들 기업들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임.

-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풍부한 장인적 기술노동력의 풀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전통인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분업적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이 일상생활에 통합 되는 사회구조와 지역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경제시스템의 성공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산업지구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협의회(industry associations)를 설립·지원하고자 하는 경향과 기업들간의 협력의지임.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제조업의 경제 성장력은 유연적으로 전문화된 지역중소기업간의 독특하고 발전된 네트워크관계에서 발현되었음. 이처럼 에밀리아 로마냐를 특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지역의 기업들이 상호간에 협력(특히 다양한 생산단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협력)하고, 집단 서비스 조직에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간 혹은 기업간에 정보를 공유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에밀리아 로마냐는 리얼 서비스 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이 현대화되고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방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음. 다시 말해서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전체의 균형 적 경제성장은 이 지역의 강한 조직적 전통과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노력 결과라고 볼 수 있음.

2)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현황

- 오늘날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인 이탈리아에서 롬바르디아(Lombardia)및 라치오(Lazio)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따라서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산업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 1단계는 물적 기반 구축기로, 2차대전 후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산업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임.
- 그 배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 더불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내에서 산업화가 진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낙후 된 지역간의 발전의 격차를 완

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음.

- 제 2단계는 제조업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별·산업별 서비스를 설립한 시기임. 1972년에 에밀리아 로마냐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개별 지역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산업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게 되었음. 이에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1974년에 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구로서 ERVET SqA(Ente Regionale per la Valorizzazione Economica del Territorio)를 설립하였음.
 - 지방정부와 지역의 민간경제주체들의 공동 출자를 통하여 설립된 ERVET SqA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구임.
 -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지역개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및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ERVET SqA가 설립된 이후 산업별 리얼 서비스 센터들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산업별 서비스센터들 가운데 가장 먼저(1976년)설립된 세라믹 산업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Centro Ceramico를 필두로, 1980년에 까르피의 특화 산업인 의섬유제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센터인 CITER가 까르피에 설립되었음. 그 이후 CESMA(농기계기술센터), CERCAL(신발·가죽산업지원센터)등과 같은 기능별·산업별 서비스센터들이 해당 산업이 특화된 지역들에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서비스센터들이 설립된 주요 목적은 각 산업지구의 특화된 산업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제 3단계의 산업정책은 전 산업에 걸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산업적(수평적)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시기임.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제조업 지원에 있어서의 지역산업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 시기에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역기술이전센터인 ASTER가 설립되었음. ASTER가 대외적으로 명시한 설립목적은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연구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이 외에 CERMET(품질연구·인증센터)과 DEMOCENTER(산업자동화서비스센터)등 도 수평적·범산업적 서비스센터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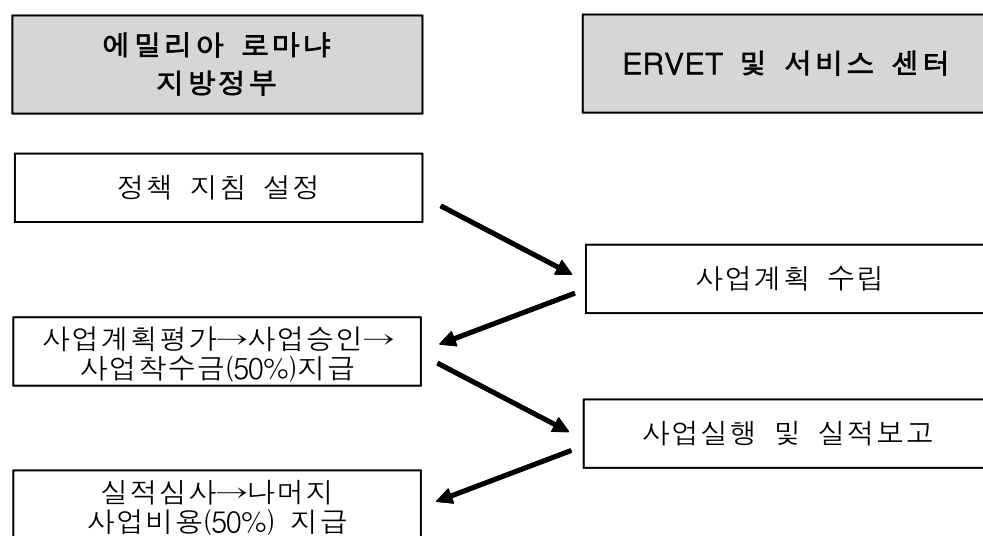
-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산업별 서비스 센터인 QUASCO(건설산업 연구·인증센터)가 1986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1985년과 1986년은 서비스 센터들의 유형에 따른 정책의 단계가 중복되는 전환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특수적인 서비스 센터들이 주로 설립된 시기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범산업적 서비스센터들의 설립을 통해 지역 전체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전반의 혁신체제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둔 시기라고 구분할 수 있음.

3)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및 운영체제

- ERVET SqA는 민·관 파트너십의 합작품으로서 이는 ERVET SqA의 소유권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음. ERVET SqA의 소유권 구조를 살펴보면,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가 지분의 80.0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나머지는 지역 금융기관(18.51), 지역 상공회의소들과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하위 지방자치단체(0.92%) 및 지역의 산업협회(0.53%)가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ERVET SqA는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법인체라고 할 수 있음.
- ERVET SqA는 지방 정부에서 입안된 각종 지역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화하는 실무 주체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내고, 응용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며,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확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방정부법 No. 255)에서 ERVET SqA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i) 지역기술이전 센터(ASTER)등 지역의 각종 리얼 서비스 센터들을 통괄하는 조정자로서 특정 산업부문과 사업영역을 초월한 통합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
 - ii)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 iii) 지역 기업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활동을 담당.
- ERVET SqA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제품 및 공정테스트 서비스, 계획은 입안과 실행, 그리고 공공정책의 평가 등이 포함됨. 또한

ERVET SqA는 산업인력의 교육·훈련, 토지이용, 환경, 관광, 농업, 사회서비스, 도시 개발 및 재활성화, 그리고 교통체계등과 같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역할도 담당.

- ERVET SqA가 실행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EC(European Commission)나 이탈리아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으로 자금 조달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의 조직(기구)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음. EC와 다른 국제 기구들 뿐 아니라 ERVET SqA는 전 세계의 기술지원과 기술개발 프로젝트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ERVET SqA의 운영 시스템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개발 및 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입안자(Planner)역할을 수행하고 ERVET SqA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역산업정책 결정에 주요한 보조자 역할 뿐 아니라 미시적차원에서 이를 직접 실행하는 실무자(execu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수직적이라기보다는 피드백을 통한 업무 추진 절차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1] 지방정부와 ERVET 시스템간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매년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ERVET 시스템에 통보하면, ERVET SqA와 각 서비스 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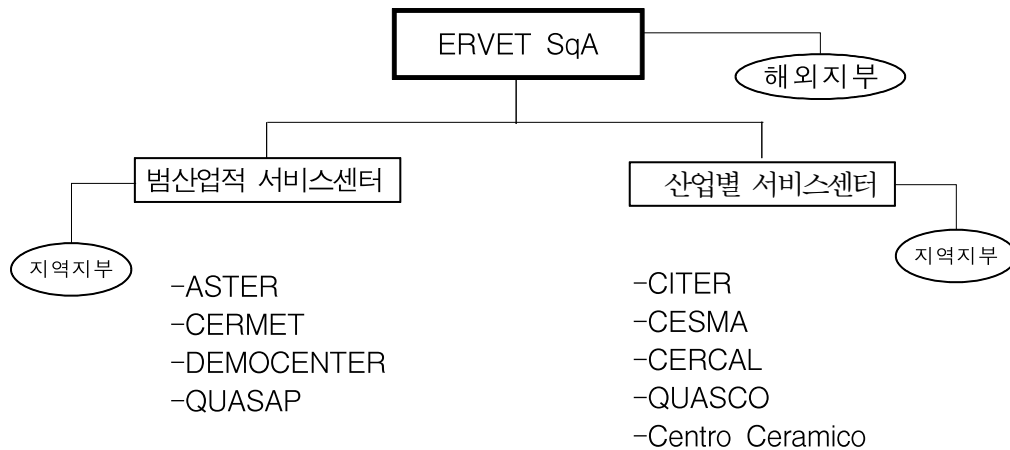
터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적이며 실천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지방정부는 ERVET 시스템의 각 센터들이 수립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취합·검토하여 시의성과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승인한 후 ERVET SqA를 비롯한 해당 사업주체에 사업 착수금조로 총 사업비의 50%를 우선 지급함.
- 지방정부는 사업 중간평가 작업을 통해 실적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개발 및 혁신관련 사업의 추진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정부의 거시 정책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은 ERVET 시스템의 연간 총 사업비의 70~80%를 넘지 않는 수준임.
- ERVET SqA와 서비스 센터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계획·추진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비용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EU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함.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은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부구조, 복지, 공공행정 등의 분야를 포괄함.

(3) ERVET 시스템의 조직

- 1980년대 중반부터는 특정산업을 초월하여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전체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센터들이 설립됨으로써 지역 전체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음.
-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로는 지역기술이전의 촉진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ASTER(기술이전센터)와 제품 및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연구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CERMET(품질연구·인증센터)등이 대표적임.
- 그 후 1990년도에 산업자동화 서비스센터인 DEMOCENTER가 모네다(Modena)에 설립되면서 ERVET SqA와 9개의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ERVET 시스템이 완성되었음.
- ERVET 시스템에서 ERVET SqA는 모조직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별 서비스센터들은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호수평적인 관계구조를 지니고 있음.
- ERVET SqA는 개별 서비스센터들의 활동목적과 활동방향을 정하고 혁신적인 기업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위서비스 센터들을 조정

하고 금융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그림 2-2] EVERT 시스템

- 서비스센터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도는 각 서비스 센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들 서비스센터들은 ERVET SqA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기구들을 매개로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에 의해서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이사회는 주로 업체 대표 및 산업협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서비스센터의 대표는 지역산업협회의 대표가 겸직하고 있음.
- ERVET 시스템의 서비스 센터들은 크게 산업별 서비스 센터와 범산업적 서비스센터로 구분됨. 전자는 산업지구별로 특화된 산업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자는 혁신, 기술이전, 그리고 생산 자동화 등과 같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관심분야를 다루고 이와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를 전 산업분야에 제공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 시기에 ERVET SqA와 리얼 서비스 센터들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조사가 시행되었음.
- 평가 결과 기업지원성과가 미진하고 자생력이 떨어지는 몇몇 서비스센터들은 그 필요성에 따라 폐쇄하거나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성과가 양호한 서비스센터들의 기능은 더욱 고도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ERVET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재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 일환으로 1993년 4월에 개정된 지방정부법 NO. 25가 통과되고 이 법률을 기반으로 ERVET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음. 그러

나 ERVET 시스템의 대한 평가를 통해 ERVET 시스템은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역혁신 체제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이끌어 냈음.

- 따라서 1990년대 중반이후 ERVET 시스템이 실시하는 정책들은 더 이상 지역 생산체제의 양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전체의 경제적 성과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음.
- 따라서 정책수립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음. 즉,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지역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지역기업들 및 협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산업이 나아갈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시행하였음.

[표 2-2] ERVET 시스템의 서비스센터

센터명	활동분야	입지	설리년도	ERVET지분	고용
산업별서비스 센터					
CITER	섬유정보센터	Carpi	1980	25.0%	19
CESMA	농기계기술센터	Reggio Emilia	1983	40.0%	7
CERCAL	신발·가죽산업지원센터	San Mauro Pasoli	1983	47.0%	6
QUASCO	건설산업 연구·인증센터	Bologna	1986	44.1%	11
Centro CEramico	세라믹산업 연구·시험센터	Bologna/Sassuolo	1976	-	40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					
ASTER	지역기술이전센터	Bologna	1985	72.9%	31
CERMET	품질연구·인증센터	Bologna	1985	32.0%	40
DEMOCENTER	산업자동화서비스센터	Modena	1990	29.2%	-
QUASAP	공공사업 수·발주 관리센터	Bologna	-	-	-

(4) 리얼 서비스 센터의 역할

- ‘리얼 서비스 센터’의 주요 활동영역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기술이전, 제품테스트 및 신연, 제품 및 생산공정중에 대한 품질 인증, 기술 및 시장 동향 등 각종 사업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음.

■ ASTER(지역기술이전센터)

- ASTER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범산업적 기술이전센터로서 1985년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와 ERVET SqA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임.
 - ERVET의 운영이사회는 ENEA(국립에너지환경기술연구소),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산업협회, 중소기업연합회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됨.
 - ERVET 보유한 초기자본의 규모는 52만 유로이며, 지분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모조적인 ERVET SqA가 37%, ENEA(10%)와 CNR(20%)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30%, 보로나 대학 등을 포함한 지역대학들이 20%, 지역상공회의소와 기업협회들이 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대학이나 연구소(ENEA, CNR)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1985년에 ASTER를 설립.
 - ASTER는 기술이전과 혁신프로젝트 추진, 기술 혁신과 경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국내외에 기술이전 파트너 탐색, 기술정보 제공, 자금조달, 그리고 EU와 같은 기관들과의 대외 관계 중계 등의 측면에서 매개 기능을 수행.
 - 이와 더불어 ASTER는 기술이전 프로젝트의 결과를 지역 중소기업들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워크샵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뉴얼, 가이드, 신문 및 기타 출판물 등과 같은 명시적 형태의 지식화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학습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흐름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 ASTER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집단 학습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음.
 - 산·학·연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ASTER를 비롯해 지역의 주요 대학들인 볼로냐 대학교, 모데나 대학교, 페라라 대학교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 산업협회, 그리고 중앙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CNR(국립과학기술연구원) 및 ENEA(국립에너지환경기술연구소)등이 포함됨.
 - 이러한 지역 내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전반에 걸쳐 혁신 노하우와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공동체, 유럽의회, UNCTAD, WDA, Kitakyshu Lodan(일본)등을 포함하여 24개 이상의 국제기구 혹은 지역개발기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CITER(의류 · 패션산업정보센터)

- 까르피(Carpi)에 소재한 섬유산업정보센터인 CITER는 까르피 니트웨어 산업지구의 중소 기업들이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진 결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1980년에 지역 중소기업들과 ERVET SqA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서비스 센터임.
- CITER의 자본규모는 20만 유로이며, 이 가운데 ERVET SqA가 2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들이 출자한 지분이 57.7%, 의류 · 패션산업관련 협회들이 11.5%를 보유해 민간기업 및 협회보유지분이 약 70%에 달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소유권 구조를 가진 ASTER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CITER는 다른 서비스 센터에 비해서 탁월한 서비스 성과로 인해 에밀리아 로마냐의 리얼 서비스 센터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음. 1990년에 이미 CITER는 운영자금의 70%이상을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었음. CITER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였기 때문임.
- CITER의 주된 역할은 패션동향(컬러, 재료, 주제), 시장, 그리고 기술에 관련된 정보서비스 제공, 시장개척, 소비동향분석, 기술혁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중소규모 의류제조업체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CITER는 새로운 시장, 장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 흐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섬유업체들의 일상적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CITER는 패션산업 R&D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탈리아 및 EU의 여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섬유 · 의류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상호협력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CITER는 의류 · 패션업체들과 지역의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조직하고 있으며, 정보보급을 위하여 섬유 · 의류 산업관련 정기간행물을 출간하고 있음.

4) 시사점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산업정책에 있어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나 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주제가 많은 정책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지역혁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혁신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부문간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환경의 조성과 가치사슬에서 연계된 산업부문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역할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하위조직들은 지역의 개별 주체들과 선형적인 연계관계를 초월하여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성과 학습네트워크로 묶어주는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이러한 거버넌스구조 하에서는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계획의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지역의 경제 주체들을 네트워크로 한데 묶어 줄 수 있는 준공공적 성격의 매개자가 필요하며 그러한 매개자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해 낼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지역개발기구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냐의 지역개발기구인 ERVET SqA와 리얼 서비스 센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준공공조직으로서 ERVET SqA와 리얼 서비스 센터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ERVET 시스템은 대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을 네트워크 관계로 묶어 넣으로써 이들 간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왔음.
-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기관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필요한 선진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지역에 전파하는 세계로 열린 네트워크 매개자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ERVET 시스템은 지난 30여년 가까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혁신체제의 중추적 매개조직이자 기업지원 서비스 조직으로 발전해 왔음.

-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혁신정책 틀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이며,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산·학·연·관 제도들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보다는 원자화된 개별 행위자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혁신체제의 잠재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더구나 정책의 기획→수립→실행→평가 단계가 수직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짐으로써 정책결정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ERVET 시스템을 비롯한 선진 지역개발기구의 운영사례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즉, 지역별 지역 개발기구는 매개기관으로서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조정·통합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평가·실행하는 것을 주요한 운영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리얼 서비스 센터들을 통합 지역개발기구의 하위 조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프랑스

1) 프랑스의 신도시

- 1960년대 후반부터 파리 등 인구밀집 지역의 1960년대 후반부터 무질서한 도시 성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파리근교에 5개, 기타 주 수도 주변에 4개 등 9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
- 신도시의 계획과 건설과정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이중에서도 자주적 권한을 지닌 신도시 개발공사(EPA)의 역할이 중요함. EPA는 해당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 논의하여 신도시개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장기기본개발계획(SDAU), 세부적인 토지점용계획(POS), 지구개발계획(PAZ) 등이 포함됨. 또 EPA는 신도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계획을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에 제출하며 주택건설, 고용창출, 토목 및 교통시설공사 등을 일관성있게 감독.
- 한편 EPA는 국가를 대신해서 장기토지매입사업, 간선도로건설 등을 담당하며 지방정부 대신 시행하는 사업에는 취수장, 하수도, 배수시설 등 1차 기반시설과 교육, 체육보건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충당. EPA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주거용 토지매각 대금. 신도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대부분 국가의 보조를 받는 주택이므로 EPA 택지공급가격, 특히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은 중앙정부의 통제. 그러나 공업용지나 사무실건설용지 분양가격은 대체로 시장여건에 의해 형성.
- 끝으로, 민간개발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써 개발협의지역(ZAC)을 들 수 있음. 개발지역협의에서는 주택용지, 상공업용지의 확보 등 포괄적인 시가지개발과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구역의 지정이 가능. ZAC내에서는 규제가 블록단위로 행해져 필지 단위의 규제시보다 높은 용적율이 적용. 또한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업자에게 부동산 평가액 대비 세율 1-5%의 설비 지방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한 시설정비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개발주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함.
- 프랑스의 경우 1940년대 중반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성장은 인구의 과밀, 지역불균형, 도시 기능의 중앙집중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 그라

비는 1947년에 <파리와 프랑스 사막> 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지역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였는데 그는 프랑스의 국토공간구조를 중심지-변경 모델로 보고 파리와 지방도시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함.

- 프랑스의 대표적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이브리는 인구수용 목표가 약 50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신도시로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밀도는 56명/ha 밖에 되지 않음. 유럽의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기존의 마을들을 그대로 보전하여 계획에 수용하였으며, 이 때문에 도시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개발. 도시구조상의 특징은 주거지역은 비교적 고밀도로 유도하고, 그 대신 도시내부에 큰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점. 주거지의 건물은 도시형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며, 대개는 4-5층 이내의 저층으로 어느 한 건물도 같은 것이 없는 다양한 형태를 취함.
- 파리 주변에 건설된 신도시는 처음에는 경제적 자족성을 강조하여 고용지수를 높게 책정하고 통근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 프랑스의 도시정책에서 신도시가 갖는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신도시의 상업지역이나 중심지의 고밀도 개발(에브리신도시, 마르나 발레 신도시).
- 둘째, 신도시 교통망의 확충과 공공하부구조의 건설 및 배치형태에 있어서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
- 셋째, 신도시의 계획인구규모가 크다는 점. 신도시의 인구규모는 최소 평균 30만명 이상 170만명에 이름.
- 넷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시이미지 조성에 신경을 쓴 후에 주택건축을 실시함으로써 입주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음.

2) 파리의 신도시 개요

(1) 개관

- 1965년 파리주변의 5대 신도시 건설결정.
- 신도시개발공사(EPA)를 설립하여 신도시건설 추진.
- 자족성이 있는 신도시로 계획 (신도시별로 상호보완기능).
-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산재된 도시건축의 거대한 실험장.

(2) 파리 주변의 5대 신도시 제원 및 특징

- 파리의 50%수준인 주택가격과 넓은 녹지 및 공지의 확보로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 현상설계를 통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실험장.
- 파리와의 접근성 양호 (TGV, RER고속전철, 일반전철,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 첨단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유치 (생강땡-이블린의 영상회의센터, 마르느-라-발레의 영상 및 정보산업단지).
- 각 신도시마다 대학이 입지 (건축학교, 토목학교, 공과대학 등) : 대학유치를 통하여 신도시의 초기인구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 50%를 넘는 높은 고용자족율.
- 유치업종의 다양화로 경기침체에 대비.

[표 3-1] 파리 주변의 5대 신도시 제원 및 특징

구분	세르지-뽕뚜와즈	에브리	마르느-라-발레	물랑-세나르	생강땡-이블린
도심에서 거리(km)	30	28	13	30	20
인구수(인)	180,000	75,000	218,000	82,000	140,000
주택수(호)	65,000	27,700	75,000	26,000	44,000
면적(ha)	8,000	4,100	15,000	11,800	7,000
개발년도	1969	1969	1972	1973	1970

3) 라 데팡스(La Defense)의 개요

(1) 배경 및 개발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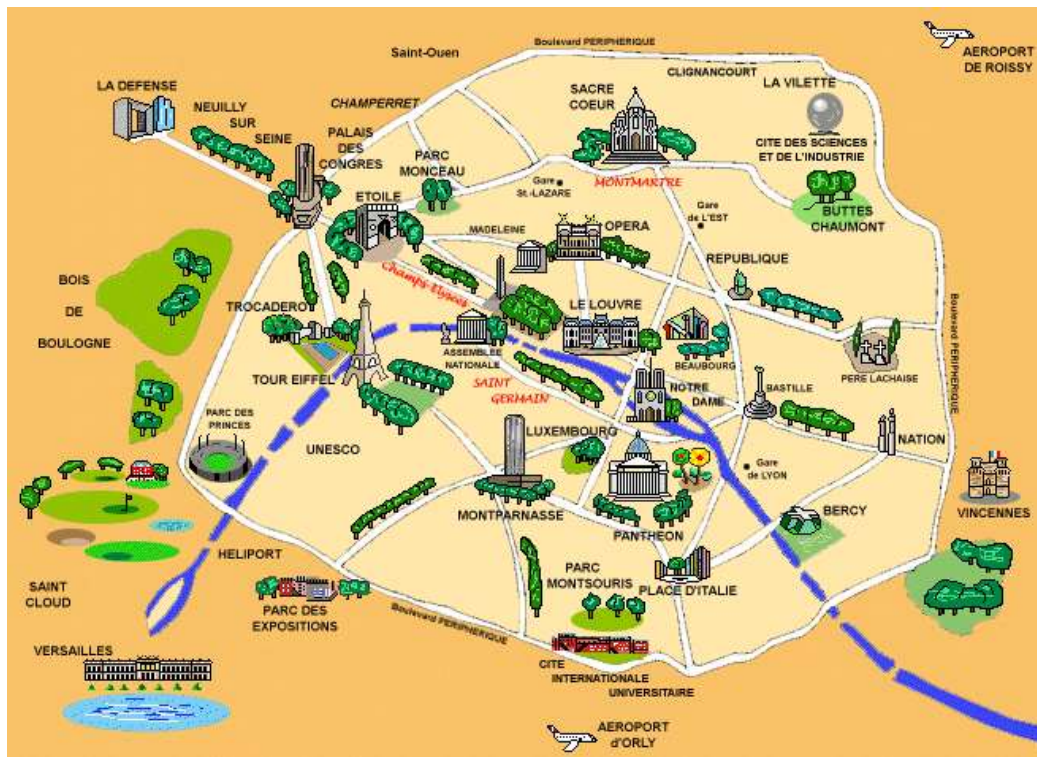
- 유럽 최대의 비즈니스파크(업무단지)인 프랑스 라데팡스(La Defense). 세느강을 사이에 두고 파리도심의 서북쪽에 있는 라데팡스는 유럽 신도시 개발의 대명사. 라데팡스는 특히 새로운 주거공간 확충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업무기능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경제 지향적" 신도시의 전형으로 꼽힘.
- 라데팡스 개발계획은 개발한계에 부딪친 파리의 업무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수립되었음. 더욱이 라데팡스는 과거 파리의 관문 역할을 한 지역이었고

게다가 개선문에서 일직선대로(그랜드 아미)로 파리도심과 이어져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었음.

- 라데팡스는 파리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6km에 위치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개발 사례. 파리 시내의 주요 건축물이 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시에 도시계획이 완성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이러한 19C 건축물을 내부개조를 통해 상업시설로 활용한 반면 라데팡스는 도시외곽의 신도시를 조성, 업무·주거·상업·숙박·문화 등의 복합 기능의 부도심을 형성한 대규모 복합단지임. 프랑스 최대기업 20개 가운데 14개 기업의 본사가 이곳에 있음.
- 라데팡스 개발의 의의로는 파리권의 이같은 강점을 더욱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개발의 기본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업무지구의 확충과 기존 산업연구부문의 체계화와 종합화를 정보화라는 흐름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음.
- 라데팡스 지구의 개발을 통해 현재는 약 10만명이상의 관리직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900여 개의 회사는 프랑스 정부예산과 거의 맞먹는 매출을 기록.



[그림 3-1] 라데팡스 전경



[그림 3-2] 라데팡스 위치도

(2) 라 데팡스 지구 개발사업 과정

- 1956년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
- 1958년 라 데팡스지구 정비공사(EPAD)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225만평(750ha)에 달하는 이곳의 개발계획 수립.
- 1964년 마스터플랜이 완성.
- 1970년 마스터플랜 변경계획.
- 1988년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의 대강이 완성되었고, 파리의 라 데팡스에서 완공한 신개선문 사업을 시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속적인 건설사업이 추진.

(3) 규모 및 시설구성

- 라데팡스는 파리 서측 도심중심축상 상징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된 대규모 복합기능 시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대표하기 위해 연면적 36,000평, 층수 35층, 건물높이 110m의 프랑스 혁명 2백주년 기념물로 제 2의 개선문을 건립.
- 라데팡스는 독특한 디자인이 구현된 각 건물의 개성이 장르의 종합이라는 하나의 분위기로 창출되는 특징을 지니며 단지전체에 조형물, 공원, 광장 등 체계적

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시적 이벤트 및 활동을 유발시키고 도시, 건축, 조각, 오픈스페이스를 일체화시키려는 기획력이 돋보임.

- 인공지반의 도입과 다층구조에 의한 도로, 철도, 지하철, 주차장 등의 입체 교통시스템 처리 등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음.

[표 3-2] 라데팡스의 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치		파리 중심부 서쪽 6km 지점
규모		- 부지면적: 약 230만평 - 투자규모: 약 25,7000억원
개발컨셉		- 업무, 주거, 상업, 숙박, 문화 등의 복합기능 - 파리 서측 도시중심축사의 기념비적 개발
시설구성	상업기능	- 6만평: 대형전문상가등
	주거기능	- 2만호
	문화·위락기능	- 국제회의장(55,000평), 자동차 박물관, IMAX 극장, 시청
	기타	- 옥외 조각 전시장, 인공지반, 공공정원(33,000평) - 주차장 25,000대 규모

(4) 토지이용 구성

- 개황
 - 라데팡스 지구는 파리의 중심 콩코르 광장에서 북서로 약4Km, 꾸불꾸불 흐르는 세느강에 걸쳐 있는 일대의 구역.
 - 파리에서는 시를 둘러싼 성벽으로 교외로의 시가지 확대가 막혀 있고 전후의 인구 증가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초 과밀의 상태. 이를 위해 정부는 1960년의 파리 수도권 계획으로 교외로의 인구 분산을 꾀하는 한편 도심의 포화된 업무시설을 번두리로 옮기고 이렇게 함으로서 업무시설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도록 결정. 1964년의 종합계획 확정까지 실제 파리 수도권계획과 부합된 계획으로서 굳혀져 상제리제를 중심으로 한 파리의 중심축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적 수준의 업무지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구주공동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힘을 보여주는 일환으로서의 기대도 담겨져 있음.
 - 라데팡스 지구는 상업, 업무중심의 A지구와 주거중심의 B지구로 크게 나뉘어 있음.

○ 계획 및 사업

- A지구는 많고 다양한 초고층 건축물로 구성된 도시계획이라는 의미에서 그 규모의 크기에서 획기적인 것이며, 업무용 빌딩 26개동, 주택 7개동 및 철도, 도로 등을 포함한 도시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A지구의 계획 책정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 1955년 업무지구 건설에 관하여 세느 현 의회가 제안
 - 1958년 라데팡스 지구 정비 공사(EOAD)설립
 - 1964년 마스터플랜 승인
 - 1967년 제1호 초고층인 노벨빌딩건설
 - 1970년 마스터플랜의 변경(건축물 형태의 자유화), ZAC(협의정비구역)변경, 용적률의 완화
- 이 계획은 당초의 마스터플랜에서 사무실은 초고층 30층 건물, 주택은 중층의 8층 건물로서 4각형, 상업용은 저층으로 되어있고 또한 각 건물의 평면은 42M*24M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경관과 수요에의 부적응이 문제로 된 결과, 1970년의 계획의 수정으로 이들 건축에 대한 규제가 탄력성 있게 됨.
- 이 계획 수정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민간 개발자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한편에서는 건설된 건물의 통일감의 결여가 문제화 된 것.
- 이 지구의 계획에 있어서는 대담하게 인공지반을 도입함과 동시에 다층 구조에 의한 교통축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기반정비를 EPAD가 하고 건축물의 건설은 민간이 시행.
- 1972년에 발표된 아 요 계획은 라데팡스 계획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호화 호텔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Mirror Class건물 2개동,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라는 기하학 형태의 건물이 각 1동씩 건설되어 당해 지구의 계획의 중추가 형성됨.
- 이 사업은 결국 당초의 예정인 통일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규제는 시행단계에서 파리 도심의 기업체의 이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건물의 디자인, 볼륨 등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스카이라인 및 거리의 불통일성이 문제가 된 도시계획이었음. 이 문제는 그 후의 재개발에 커다란 교훈을 남김.
- 한편 B지구에서는 주택 주체의 재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원통형으로서 특이한 창문과 외관 디자인의 고층주택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개발 현황

- 앙드레 말로공원이 있는 공원지역(27만평)은 주거 및 레저 교육중심 지역으로 8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 또 파리10대학(낭테르대학)이 있는 나머지 미개발 지역(150만평)은 오는 2007년까지 주거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
- 주택은 대부분 고층아파트로 서민주택, 학생주택, 퇴직자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건설됨. 지역별로는 비즈니스지역에 1만100여 가구, 공원지역에 5,600여가구가 있으며 이곳에 약 3만9,000여명이 거주. 현재 라데팡스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인원 14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활동인구가 파리를 비롯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셈. 앞으로 미개발지역을 추가로 개발, 오는 2007년까지 약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게 EPAD의 방침.
- 교육시설로는 예술성이 강조된 신도시임을 반영하듯 오페라무용학교인 파리 오페라학교와 건축학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학교. 이밖에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인 4계절쇼핑센터(매일 5만 명 이용)와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있으면서 우리의 KOEX 역할을 하는 CNIT(연면적7만여 평)등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음.



[그림 3-3] 라데팡스의 개발계획



[그림 3-4] 라데팡스의 안내도

- 이러한 도시기능 말고도 라데팡스에는 "가장 프랑스적인" 설계구조가 도시전체를 수놓고 있음. 다름 아닌 40년 가까운 개발기간동안 변함 없이 적용되고 있는 "역사적 중심축(Great Axis) 연결" 작업. 라데팡스는 루브르박물관, 콩코르드광장, 샹젤리제거리, 개선문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 선상에 놓여 있음. 이를 위해 라데팡스 신도시는 낭테르 쿠르브부와 뤼토 등 3개시에서 일부 지역을 흡수, 중심축 좌우가 대칭이 이뤄지게 구획.
- 프랑스의 업무중심지로 자리를 굳힌 라데팡스. 유럽 최대의 비즈니스파크라는 분명한 성격을 규정하고 여기에 잘 맞는 완벽한 교통, 업무 환경을 창출해낸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베드타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신도시"도 만들어낸 원동력.

(5) 교통계획 구성

- 정부보조와 건축권판매로 조성된 자금의 대부분이 교통시설에 집중 투입됐다. 14번 고속도로(A14), 지하철인 메트로 1번선, RER(고속철도) A선, SNCF(국철), 버스 18개노선 등을 모두 복층도시의 지하로 집어넣었음. 이는 지상에서의 도로확장, 신규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비부담, 공기장기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간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3-5] 교통체계도

- 지하철교통망은 하루에 15만여 명을 실어 나름. 이를 통해 파리주변 모든 신도시에서 1시간, 대부분의 공항에서 45분, 모든 파리기차역에서 35분, 파리의 중심 업무지구(상제리제-파리증권시장)에서는 15분에 이곳과 연결됨.
- 외부에서 라데팡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80%가 이 지하철교통망을 이용. 특히 이러한 복층 도시구조의 지하철교통망은 "보행자 지상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 관광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 다니고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없는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도시"를 구현.



[그림 3-6] 라데팡스 도로 현황

(6) 라데팡스 관광신도시

- 라데팡스 신도시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업활동무대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광적 요소가 극대화된 도시. 라데팡스는 최고의 비즈니스단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기능만을 중시, 무미건조한 초고층 빌딩 숲만을 건설하는 방식을 피함. 전체적인 도시설계에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트인 공간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했음. 그래서 라데팡스는 "미학과 기능이 조화된 도시"로 불리기도 함. 예술작품의 경우 세자르 미로 등 전 세계의 유명 예술가들이 참가, 60여 개의 조각품 등이 설치.
- 89년 프랑스혁명 2백주년을 기념해 건설된 그랜드아치 등 대형 건축물 및 설치물로 볼거리를 이룸. 현지에서는 이들 두고 "야외박물관"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많은 관광객과 조각가 지망생들의 발길이 이어짐.
- 루부르박물관~개선문~라데팡스로 이어지는 8km의 일직선 길을 일컫는 "역사적 중심축"을 살린 도시설계는 매우 인상적. 이 일직선 도로를 통해 라데팡스에서 파리의 개선문이 곧바로 보임. 중심 축은 17세기부터 프랑스의 각 왕조나 정부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한 일직선의 대로로 프랑스는 파리에서 라데팡스를 거쳐 북서쪽 25km에 위치한 세르지퐁트와즈 신도시 전망대까지 이 축이 연장.
- 라데팡스는 이를 관광상품화해 다른 신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기념품상점까지

비즈니스지역 한가운데 설치해 놓고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책자 10여종을 만들어 판매.



[그림 3-7] 역사의 중심축

- 그랜드아치에 전망대를 만들고 전망대에 예술작품을 전시, 외부인들을 끌어 모음. 연간 방문객은 약 100만 명이나 됨. 특히 비즈니스지역의 복층구조물 위층인 지상으로는 자동차가 전혀 다닐 수 없는데도 둘러보는데 40분 걸리는 소형 관광버스만은 다닐 수 있도록 허용. 최상의 업무기능을 살리면서 "관광신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대목.

(7) 라데팡스의 건축물

- 라데팡스의 상징물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조각적 입방체는 그 규모가 초기안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m×100m로 루브르궁의 사각 궁전과 거의 비슷한 척도. 이는 내부 중앙이 빈 입방체로 구성돼 있으며 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아이들의 유희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그 열린 공간은 ‘세계를 향한 창’을 표방하면서 전지구적인 하나의 공감대 의미. 유행과 양식적인 형태를 벗어나 주변의 건물들과 달리 친근감을 주는 순수한 기념비적 의미를 지님.
- 상부 옥상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아치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5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양쪽 끝을 반원형 유리 돔으로 막은 유리 원통

모양으로 고안. 비록 유리원통이라고 하지만 그 강도와 기술적 정교함은 비행기의 창유리와 비교될 정도로 단단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림 3-8] 라데팡스의 신개선문



[그림 3-9] 라데팡스의 건축물

- 라테팡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현대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시내 중심부에서는 건축물 보호에 따라 대규모의 신축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크게 상업지구와 주택지구, 공원지구로 구분됨.
- 그랑 다르슈는 하이테크 건축 기법을 사용, 천정을 구름모양의 텐트로 덮은 구조물임. 이 앞의 넓다란 광장은 파리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서 여름이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나마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어 내고자 노력한 그들의 건축의식과 설계 개념이 돋보이는 건물임.
- 이곳을 현대의 개선문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심벌이라 표현했던 덴마크 건축가 스프레켈센(Johan Otto von Spreckelsen)의 디자인과 논리적인 창의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그는 그랑 다르슈가 준공된 것을 보지 못한 채 타계. 그랑 다르슈는 그가 죽은 뒤 프랑스 건축가인 폴 앙드로와 프랑수아 텔로지가 함께 완성함.

4) 시사점

- 프랑스의 신도시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로 인해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관광산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공감대속에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보다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만들어가는데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새롭게 변해가는 트렌드에 적용으로 다양한 도시 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최근 이러한 기조를 수용하여 생태주거를 지향하는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프랑스의 신도시 특히 라 데팡스를 보면, 매우 경제적인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음.
- 구시가지보다 높은 건축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차로가 없는 도시 : 도로의 지하화) 등 혁신적인 도시개발 추진.
- 업무지구의 개발시 국제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실험적인 도시설계를 통해 학문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라 데팡스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개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농촌 지역의 지역개발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함. 하지만 차별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현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농촌지역의 지역 개발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라 데팡스의 개발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향후 농촌개발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촌적인 특징으로 소규모 시가지에서의 보행공간의 확보와 보행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예술, 문화, 공연 등)을 가능하도록 기반정비를 추진.
 - 지역을 연고로 하는 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재정뿐만 아니라 활동인구의 확보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
 -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룬 건축형태 및 자재활용을 통해 지역색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

4.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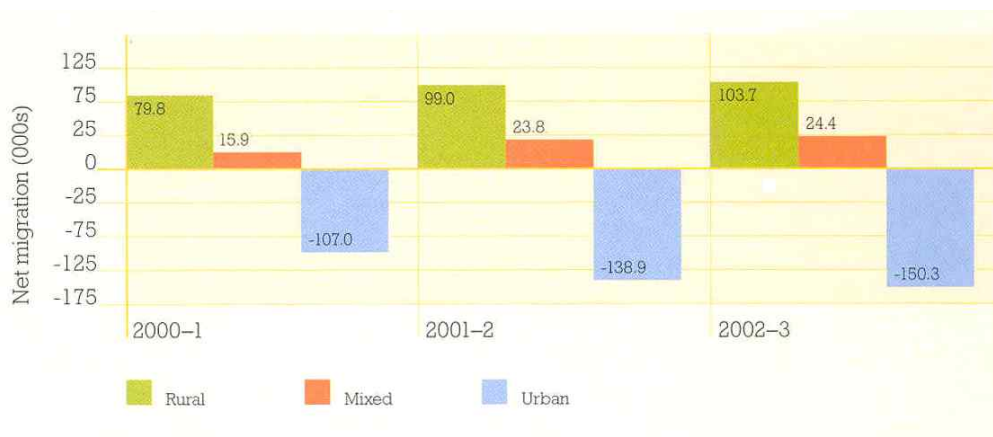
1) 영국 농촌의 일반현황

-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지역별 인구변화 추세를 보면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소도시·산업지구·신도시 및 전원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도시화 현상(Counter-urbanization)’이 나타남.
- 실제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 전체의 인구는 6.5% 성장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농촌인구는 14.4% 증가하였음.

[표 4-1] 지역 유형별 인구추세 변화(1981-2003)

	Population change 1981-1991	Change as % of 1981 population	Population change 1981-2003	Change as % of 1991 population	Population change 1981-2003	Change as % of 1981 population
Rural	656,200	6.4	816,000	7.5	1,472,200	14.4
Mixed	519,100	4.2	575,500	4.5	1,094,600	8.9
Urban	-121,100	-0.5	589,200	2.4	468,100	1.9
England	1,054,200	2.3	1,980,700	4.1	3,034,90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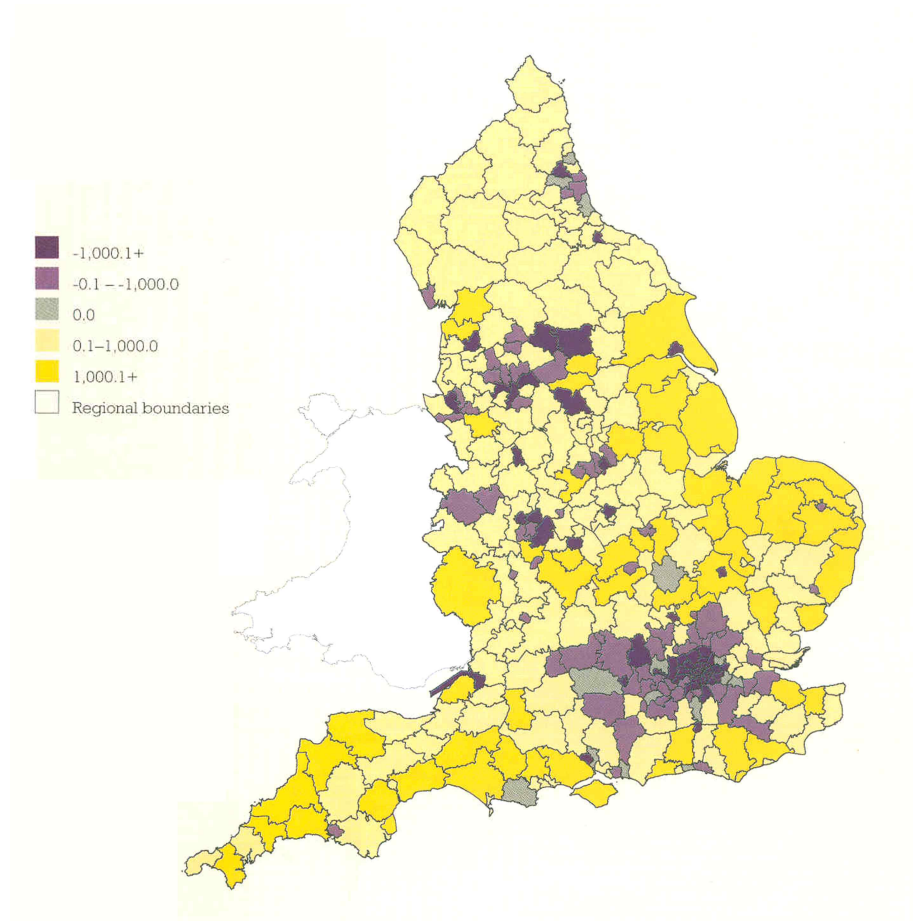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그림 4-1] 지역 유형별 순인구 유입 현황

- 최근 인구이동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해안과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그림 4-2] 영국내 인구이동 결과(2002-2003)

- 또한 농촌지역의 고용구조면에서도 농업종사자 비율이 평균 10%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종사자 비율은 62%로 대도시 수준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인구 및 고용구조의 변화는 영국 농촌의 사회 경제구조가 기존의 농업·농민 중심에서 비농업·비농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발전을 위한 중요 이슈들이 기존의 1차산업 중심에서 소비중심 이슈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함.
- 결국 비농업부분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된 현재 농촌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동일시하는 기존정책에서 탈피해 농업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분을 포괄하는 농촌발전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음.

2)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개요

- 2000년에 발표된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등 네 국가의 전국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각각은 각 지역의 특성과 다른 유럽연합(EU) 지역정책(목적1·2정책)의 적용 여부에 따라 농촌발전정책의 구성과 내용이 서로 다름.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농촌발전정책 규정(CEC, 1999)이 기존의 CAP에서 시행하던 동반시책(accompanying measures)과 구조기금정책에서 지원하던 비동반시책(non-accompanying measures)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각 지역이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농촌발전정책의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었음.
- 잉글랜드 농촌발전 프로그램(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은 크게 전국계획과 지역계획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국 계획은 현재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의 전신인 농수산 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에서 작성한 것으로 농촌지역의 현황과 농촌발전의 목표 그리고 7년간 운용될 예산내역과 정책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계획은 지방행정체제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구분된 9개의 지역에서 각각 작성된 것으로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목표, 지원 및 예산조달,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전국계획에 제시된 영국 농촌 및 전원지역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영국 농촌의 독특한 환경·경제 및 사회구조를 유지·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첫째, 농촌지역의 빈곤을 제고하고, 농촌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시키는 것.
 - 둘째, 농촌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
 - 셋째,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것.
 - 넷째, 일반인들이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다섯째, 중앙정부·지방정부·정부기관·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농촌공동체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
- 다섯 가지 목표 중에서 영국 농촌발전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로는 첫 번째 목표인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창출하는 것'과 세 번째 목표인 '농촌환경의 보존·강화'가 선정.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국정부는 2000~2006년에 총 17억 파운드(약 27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각 연도별·정책분야별 배분율은 아래 표와 같음.
- 환경보존과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활동을 창출하려는 농촌발전의 목표는 2000~2006년에 실시될 정책과 예산사용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음. 즉 약 73%의 예산을 환경농업과 농지조림화 정책에 지원하고, 특히 유럽연합(EU)규정 1259/1999의 4조에 따라서 '농업보조금 조정(Modulation)'정책을 사용해 농업환경정책 및 산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정책분야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 비율이 7년간 큰 변화는 없지만, 조건불리지역정책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2] 잉글랜드 농촌발전 예산지원 분야 및 계획(단위:%)

사업분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농가개선을 위한투자	0.0	0.5	0.7	1.9	1.2	1.3	1.5	1.0
직업훈련	0.0	1.1	1.2	1.5	1.5	1.4	1.8	1.3
조건불리지역 보조	28.4	22.6	18.9	15.5	12.9	9.6	8.5	15.2
농업환경정책지원	56.0	57.5	56.4	56.8	57.0	59.6	57.5	57.4
가공·유통개선사업	0.0	1.2	2.9	3.3	3.0	2.8	3.6	2.6
농지조림사업	10.4	10.5	11.1	10.8	10.1	10.2	9.4	10.3
기타조림사업	5.2	4.4	4.5	4.0	3.6	3.4	3.1	3.9
농촌기업지원사업	0.0	2.2	4.4	7.2	10.7	11.7	14.7	8.4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MAFF(2000a)

(2)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유형

-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토지기준 지원정책(Land-base scheme)과 사업별 지원정책(Project-based scheme)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토지기준지원정책들은 농지의 소유 또는 경영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

며, 유럽연합(EU)의 조건불리지역정책으로 실시되었던 ‘구릉지 축산업보조정책(Hill Livestock Allowance: HLAC)’을 개정한 ‘구릉지 농장지원시책(Hill Farm Allowance: HFA)’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에 동반정책으로 CAP 예산인 유럽 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ound: EAGGF)의 보증부문(Guarantee Section)에서 지원하던 정책들임.

- 이들 정책은 모두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농민에 대해서만 토지면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각각의 정책에 따른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차별없이 영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농민은 여러 가지 정책에 동시에 지원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HFA의 경우는 기존에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되 지역의 농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ESA는 선정된 지역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업별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과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함. 각 지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 시행기관인 농촌발전부(Rural Development Service: RIDS)가 농민이나 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사원과 지원금액을 결정함.
- 사업별 지원금액 중 공적예산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해당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이익수준을 감안해서 각 지역 RDS가 독자적으로 결정함.
- 토지기준 지원정책들이 주로 CAP에서 이전부터 실시해왔던 정책인데 비해, 사업별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세 가지 시책들은 「아젠다 2000」 개혁에 따라 CAP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들이지만, 사실상 농촌발전 프로그램 형성 이전부터 MAFF의 독자적인 정책 또는 구조기금의 목적 1 또는 5b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사업들임.

[표 4-3]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종류

정책분야	프로그램의 종류
토지기준 지원시책	전원관리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환경민감지역정책(Envior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유기농업지원정책(Organic Farming Scheme)
	산림지원정책(Woodland Grant Scheme)
	농지조림지원정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에너지작물지원정책(Energy Crops Scheme)
	구릉지농장지원정책(Hill Farm Allowance)
사업별 지원시책	농촌기업지원정책(Rural Enterprise Scheme)
	직업훈련지원정책(Vocational Tranning Scheme)
	가공·유통사업지원정책(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Scheme)

* 자료 : MAFF(2000a)

(3)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전원관리 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

- 이 정책은 자연적인 미관과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그리고 역사적 또는 레저상의 가치 때문에 선정된 특정한 경관을 보존·강화·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적합한 토지의 관리·운영을 조건으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영국 전역에서 경종작물 경작지(arable farmland), 석회질 초지(chalk and limestone grassland), 해안지대(coastal areas), 도시인근 전원지역(Countryside around towns), 토지 경계물(field boundaries), 전원지역의 접근로(new access), 옛 목초지(old meadows and pastures), 옛 과수원(old orchards), 고지대(uplands), 수변지역(waterside land)등을 대상지역으로 함.
- 이외에 각 지역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특정한 경관 및 서식지를 보조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관련단체들이 협의해 매년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 또는 유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토지에서 10년 동안 준수하겠다는 계약을 한 농민 또는 토지관리자에게 지급.
- 보조금액은 해당부문의 관리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비용 그리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계산하며, 각 토지 및 유물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

■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ESA)

- 1987년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22개 지역은 ESA로 지정.
- 이미 선정된 22개 지역에서 농업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정책은 10년간 관리계약에 동의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CSS와는 달리 5년 후 농민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 대상토지면적에 상한이나 하한은 없지만 '전체농장규정(Whole Farm Rule)'을 적용해, 참여농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토지가 모두 ESA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 농지가 ESA 정책의 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
- 보조금은 소득감소분과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서 지급하지만, 각각의 ESA 지역은 독특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급액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ESA도 CSS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이외에 잉글랜드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농장의 장기적 보존계획(Conservation Plan)에 따라 ESA에서 규정한 것보다 환경보존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할 경우 영국정부가 별도로 지원.

■ 유기농업지원시책(Organic Farming Scheme: OFS)

- 농민들에게 유기농법을 장려해 농지의 환경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유기농산물의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약 5년간 소득감소분과 유기농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특별히 지역은 지정하지 않고 잉글랜드 전역에서 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려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
- OFS에 지원하려는 농민은 영국의 유기농협회 등 관련기관에 등록하고 해당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액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별로 지급비율을 줄이고 초식보다는 경종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4-4] 유기농업지원시책의 연차별 보급

£/ha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액
경종작물재배 토지	225	135	50	20	20	450
기타 개간지	175	105	40	15	15	350
개간되지 않은 목초지	25	10	5	5	5	50

* 자료 : MAFF(2000a)

- 이 보조금은 소득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CSS나 ESA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OFS 보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CSS또는 ESA 보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한편 농민이 등록되어 있는 유기농업 관련기관의 자문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시설을 구입할 경우 농가당 총 600파운드를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이는 유럽연합(EU) 지원금과는 별도로 잉글랜드 정부에서 지원함.
- 이상에 세 가지 시책은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의 22~24조에 따른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schemes)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1999년 이전까지 실시되었던 기타 시책들이 이들 세 가지 시책으로 통합된 것임.

- 이들 세 가지 시책은 공통적으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건전한 영농방법을 위한 수칙의 준수'가 보조금지급의 기본조건임.
- 보조금의 액수는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에 규정된 것처럼 일반적인 경종 작물재배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600유로, 다년생작물에 대해서는 900유로, 그리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450유로를 최고한도로 지급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보조금이 있음.

■ 산림지원시책(Woodland Grant Scheme: WGS)

-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 29조~32조에 따라 잉글랜드 농촌발전 프로그램에서는 산림조성을 위해 산림지원정책(Woodland Grant Scheme: WGS)과 농장조림지원정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FWPS)등을 도입.
 - WGS는 잉글랜드 전역의 농지뿐만 아니라 일반토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운영하며, FWPS는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민만이 보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그 운영도 DEFRA에서 담당.
- 농지와 비농지 모두를 포함하는 WGS 시책은 ㉠ 임업생산물의 증가, 경관개선, 임지의 생물다양성 개선, 휴양지조성 등을 위해서 새로운 산림지 조성을 장려하고 ㉡임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며,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다원화에 기여하고, ㉣농지의 대안적이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WGS에서는 모두 세 가지의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첫째, 일정한 품목의 산림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운데 고정된 금액을 보조(Standard rate grant), 둘째, 고정 지원금에 추가해 특별히 산림조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지원금을 지급(Additional contribution)하는 것임.
- 셋째는 챌린지 펀드(Challenge Fund)라고 불리는 지원금인데 이 펀드에서 설정한 세부적인 목적을 만족하는 특정한 지역과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 보조금과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쳐 산림의 가치나 공익성을 감안해 산림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금 액수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경우 표준지원금이 수종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정하지만, 챌린지 펀드는 산림의 위치나 품목에 따라 신축적으로 지원금액을 결정.

■ 농장조림지원시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FWPS)

- 현재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임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산림의 조성을 통한 경관의 개선, 새로운 서식지 조성,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개선을 도모하며, ㉡이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FWPS는 WGS와 연계해 운영되며 농지에 산림을 조성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WGS를 통해서 보조받고, 산림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은 FWPS의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
- 농민의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검토해 액수를 조정하고 있음. 보조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년한은 농지의 형태와 수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높은 농업생산성을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
-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일반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 4-5]와 같음. 즉 농업생산성이 높다고 간주되는 조건불리지역 이외에 지역 가운데 경종농업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지에 대한 보조금이 가장 높고, 조건불리지역 중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토지개량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급.

[표 4-5] 농장조림지원시책의 보조금액

농지분류	지역분류	보조금액(£/ha/년)
경종농업 보조금 적용농지	LFA 이외지역	300
	LFA의 불리지역(DA)	230
	LFA의 심각한불리지역(SDA)	160
기타 경종작물 재배지/개간초지	LFA 이외지역	260
	LFA의 불리지역(DA)	200
	LFA의 심각한불리지역(SDA)	140
기타 비개간초지	LFA 지역	60

* 자료 : MAFF(2000a)

■ 에너지 작물 지원시책(Energy Crop Schemes)

- 「아젠다 2000」 개혁에 따라 농촌발전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에너지작물지원시책은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사용화가 가능한 두 가지 작물 [억새(Miscanthus)와 작은 관목(Short Rotation Coppice, SRC)]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두 가지 중 현재 대체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역새의 경우 재배비용이 헥타르당 2,300파운드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총비용의 40%인 920파운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그리고 만약 농민이 현재 휴경중인 토지에 역새를 재배할 경우 휴경에 따른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
- 그러나 농민이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새를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며, 또한 산림위원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환경보존, 경관, 휴양 및 공공접근성, 고고학적 영향, 건전한 영농방법수칙 준수 여부 등)를 받아야 함.
- 버드나무나 포플러에 적용되는 SRC는 역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로의 이용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농지 또는 일반토지에서 작은 관목들의 식수를 통한 환경보존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SRC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이들을 식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헥타르당 2,000 파운드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초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전환할 경우 헥타르당 고정금액으로 1,600 파운드를 지급(가축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격을 잃기 때문에)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1,000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
- 에너지 작물 지원시책은 RDS가 담당하고, 보조금 역시 이 기관을 통해서 지급되지만 신청된 지원서상의 재배계획에 대한 평가나 심사는 산림위원회가 담당.

■ 조건불리지역지원시책(Hill Farming Allowance)

-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 포함되면서 CAP 농촌발전정책에 포함된 조건불리지역 지원시책은 그 목표가 기존의 농업생산성 향상에서 전원경관 및 환경보존으로 전환되었음.
- 유럽연합(EU)규정 1257/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목표는 첫째, 농업의 지속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공동체의 지속에 기여하는 것, 둘째, 전원을 유지하는 것, 셋째, 환경보존 및 이와 연관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유지·촉진하는 것 세 가지임.
- 이번에 개정된 조치에서는 기존에 사육가축 마리당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집약적 농업을 촉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보조금이 농업생산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유면적당 보조금(최하25유로에서 최고 200유

로)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

- 이와 함께 각 회원국들이 환경조건을 부가할 경우 보조금 지급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음.
- 잉글랜드의 경우, 개혁된 조건불리지역정책을 수용해서 기존의 '구릉지 축산업 보조정책(Hill Livestock Compensatory Allowance: HLCA)'을 '구릉지 농장지원 대책(Hill Farm Allowance: 이하 HFA)'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불리지역(Disadvantage Area: DA)과 매우 불리한 지역(Severely Disadvantage Area: SDA)에 추가해 황무지(Moorland)와 황무지 이외의 공동초지(Common Land)를 대상지역에 포함하였음.
- 이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형태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임.
- 보조금 지급의 기본조건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만족해야 함. 첫째, 최소 10헥타르의 초지를 경영하며 토지구분을 위해서 도입된 IACS(Integrated Administration Control System)에 지원한 농가, 둘째, 양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셋째, 최소 0.15 가축단위를 사육하는 농가, 넷째, 토지면적당 초과사육을 금지하는 지침(Good Farming Practice)을 따르는 농가, 다섯째, 가축질병 등의 처리에 금지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 여섯째, 최소 5년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인 최소 10헥타르의 기준은 1997년 조건불리지역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Drew Associates, 1997)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기존에는 3헥타르 이상의 농가가 대상이었지만, 경제적인 기준에서 10헥타르 이상이어야만 농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러한 지급기준에 따라 2001~2006년에 계획된 헥타르 당 보조금수준을 살펴보면 [표 4-6]과 같음.

[표 4-6] 구릉지농장지원시책의 연도별 보조금

£/h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황무지	13.02	11.91	11.76	11.27	9.39	9.39
공동초지	13.02	11.91	11.76	11.27	9.39	9.39
기타DA	18.60	17.03	16.80	16.11	13.42	13.42
기타SDA	34.40	31.49	31.08	29.80	24.82	24.82

* 자료 : MAFF(2000a)

- 이러한 기본보조금 이외에 환경보존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도 도입되었는데, 총 여섯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지급하고, 둘 이상을 준수할 경우 20%를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추가적인 환경보존 보조금 이외에 기존에 사육가축 마리당 지급하던 보조금을 토지면적 단위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농가소득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한 안전(Safety-Net)조치로서 2001년부터 3년 동안 일정액의 보조금을 보장하는 조치가 추가되었음.
- 즉 2000년에 받은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을 기준으로 2001년에는 농가가 최소한 기존 보조금의 90%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2002년에는 80%, 2003에는 50%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 뒤 2004년에 폐지하는 것임.
- 보조금의 수준은 토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이 경영하는 토지면적의 350헥타르까지는 규정된 보조금의 100%를 지급하며, 350헥타르에서 700헥타르까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그 이상의 경영면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는 기존보조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유리하게 시행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임.

■ 농산물 가공·유통지원 시책(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Scheme)

- 1차 농산물의 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하는 이 시책은 농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공·유통에 관련된 단체나 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그 주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가공·유통업체들임.
- 각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액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 정책은 건물의 신축·개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새로운 설비의 도입, 외부 전문가의 고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총투자비용의 30%를 최고한도로 하는 지원금은 최소한 7만 파운드 이상의 총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또 지원금액의 최고상한선은 120만 파운드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시책에 따른 지원은 농민 개개인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가공·유통사업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지원 예외규정에도 나타나 있음.
- 즉 소매업수준의 투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이외 지역

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주로 가공·유통하는 사업과 우유나 유제품의 가공·유통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직업훈련지원시책(Vocational Training Scheme: VTS)

- 이 시책은 주로 농업이나 임업 종사자들에게 환경이나 경관보호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나 강화된 위생기준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 또는 농가의 경제력 생존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영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제공되는 교육분야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경영교육 등 총 11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이외에 각 지역에서 특정한 교육훈련의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 후 지원함.
- 따라서 프로젝트의 신청자들은 주로 지역단체라고 할 수 있고 수혜자는 농민과 일반 주민임.
- 신청한 사업의 심사과정에서 다른 농촌발전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상호보완 효과를 감안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됨.
- 한편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직업훈련교육과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인 목적 2·3 정책에 따른 직업훈련간의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하지만 목적 2·3 정책에 따른 직업 훈련교육이 주로 경제적·사회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직업교육은 주로 농업·임업 또는 1차 산업수준에서의 경제적·환경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유럽연합(EU)예산이 중복 보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적2·3정책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발전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최고한도로 하는 지원금은 특정분야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비용, 교육자료와 강사의 임금, 평가비용, 그리고 기타 교육시설의 구입을 위한 자본투자(감가상각부분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촌기업지원시책(Rural Enterprise Scheme: RES)

-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의 33조는 농촌발전을 위한 조치로 열세가지의 각 회원국의 자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이 가운데 아홉가지 조치¹⁾를 농촌 기업지원시책(RES)이라는 단일 시책

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각 지역의 독특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아홉 가지 분야에 대해 지역의 농민이나 비농민이 지원한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위원회(Regional appraisal panel)를 구성해, 이들이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체계를 형성하였음.

-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워서 그 지원율을 적용하고 있음.
 - 첫째, 경제적 이익의 발생이 매우 적거나 없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50~100%를 보조하며, 특별한 경우에 100%를 보조.
 - 둘째, 신청한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 보조금은 총투자비용의 30~50%를 지원.
 - 셋째, 프로젝트를 통한 사적인 이익이 매우 큰 경우 15~30%의 보조율을 적용.
- 이러한 비율 내에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심사과정을 거쳐서 농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보조금 이외에 나머지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상에서 이런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함.
- RES 시책에 대한 지원자는 농민이나 지역단체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여러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역기관이나 단체들간에 소위 '대표자 지원시책(Delegate grant scheme)'을 형성해서 농민이나 개인들이 지역 RES의 운영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표자 지원시책을 형성한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 RES 시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지만, 지역이 유럽연합(EU) 구조기금의 목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운영기관이나 지원예산의 출처가 다름.
- 즉 목적 1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RES 시책이 목적1정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가 RDS가 아니라, 구조기금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GO)가 되고 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원예산도 구조기금인 EAGGF 지도부문에서 지원.

1) 이들 아홉가지 조치는 ①농장구제 및 농장경영 관련 서비스의 설립, ②양질의 농산물 유통, ③농촌경제와 주민들을 위한 기본서비스, ④농촌유적지의 보존 및 마을의 발전·재활, ⑤농업 및 기타 경제활동의 다원화, ⑥농업용수관리, ⑦농업발전과 관련된 인프라의 개선, ⑧관광·수공업 활동장려, ⑨농업·임업·경관보존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환경보호 등이다

3)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 및 관련기구

- 「아젠다 2000」 개역에 의해 CAP이 농촌발전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유럽연합(EU)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에서도 지역발전정책의 실시체계와 농촌발전정책의 실시체계가 분리되었음.
-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 구조기금에 따른 지역발전정책이 각 지역의 중앙정부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별도의 운영체계를 형성해 추진하는 반면,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DEFRA의 중앙조직과 각 지역의 RDS가 주관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의 농촌발전 프로그램 실행기구 또는 정책담당자 그룹을 살펴보면, 첫째,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 중앙부처들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발전 프로그램 정책자문그룹(Policy Advice Group: 이하 PAG)'을 설치하였음.
 - PAG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 부총리실(ODPM), 문화체육부(DCMS), 통상산업부(DTI), 지역청(RDA : 남서부 RDA가 대표), 자연청(The Environment Agency)등이며, 여기에 남서부지역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농촌분야 책임자와 농촌지불청(RPA) 대표가 포함됨.
 - 이 그룹의 의장은 DEFRA의 토지이용 및 농촌분야 책임자(Director)가 맡고 있으며,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해서 DEFRA가 초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부처간의 협력을 조율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
 - 농촌발전프로그램에 관한 정책결정의 주요 권한은 '농촌발전 프로그램 이사회(Ministry of Board)'에 있음.
 - 이사회는 DEFRA 내 4명의 차관(Ministries)과 각 분야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농촌분야 차관이 의장을 맡고 있음.
 - 이들은 PAG의 자문 및 건의를 받아서 실제적인 정책을 결정함. 이 결정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농촌발전 프로그램 운영부(Programme Board)'가 있고, 이 기구는 각 지역 RDS에 정책결정사항이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기구로는 PAG이 이외에도 1년 반에 두 번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심포지엄이 있음. '농촌발전 프로그램 컨설팅그룹(Consultation Group)'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중앙 정부 부처의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촌발전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농민과 지역의 대표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정례화 되어 있는 이 기구의 심포지엄을 통해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의 추가 여부가 논의되며, 이 기구의 논의사항 또는 합의사항은 문서로 DEFRA에 전달됨.
- 각 지역 단위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으로는 RDS, 지역심사위원회(ERDP Regional Appraisal Panel: RAP), 지역프로그래밍그룹(ERDP Regional Programming Group: RPG), 지역컨설팅 그룹(ERDP Regional Consultation Group: RCG) 등이 있음.
 - RDS는 농촌지불청(RPA)이 주관하는 조건불리지역지원시책(HFA)과 산림위원회가 주관하는 산림지원시책(WGS)을 제외한 모든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농민이나 지역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음.
 - 그리고 지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RPA에 청구하고, 각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
 - RAP는 신청된 프로젝트가 농촌발전에 미치는 영향, 각 사업체의 장기 전망, 고용 및 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투자비용의 적정성 등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점수 이상인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사업계획서의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 지원비율을 결정해 RDS에 통보하는 기능을 담당.
 - RAP는 지역 RDS의 책임자가 의장이며, 중앙부처 지방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의 담당자와 그 외에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됨.
 - 중앙부처의 정책자문그룹(PAG)처럼 지역 RDS에 자문하는 'RPG'가 있음. 이 그룹은 초기 농촌발전계획의 지역계획작성에 참여했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문기관과 유사하지만, 각 중앙부처이 대표로 중앙부처 지방사무소의 담당자가 참여하며 또한 정부 출연 공공 단체의 지역지부 대표자가 참석하고 있음.
 -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심포지엄으로 RCG가 있음. 이는 전국 단위의 컨설팅 그룹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농촌발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의하고 RDS에 건의하는 기능을 담당.
-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정책이 별도의 지역추진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각 지역의 RDS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를 수용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지나 중앙정부의 인식과 이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임.

- 「아젠다 2000」 개혁에 의해 기존의 농업정책을 수행하던 기관(CAP와 DEFRA)이 농촌발전정책에 참여하게 되면서 1988년 이후 구조기금의 수행과정에서 일정하게 진전되었던 지역주도의 발전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음.
- 구조기금정책 분야에서는 지역위주의 발전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농촌발전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중앙정부 위주의 농업정책 실시전통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임.

(2) 지원과정 및 모니터링 체계

- 농촌발전 프로그램 가운데 토지기준지원시책은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잉글랜드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그림 4-3]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사업기준지원시책의 경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지원 및 초기 심사과정

- 신청자는 농촌발전 프로그램 지원서와 농촌기업지원시책 지원서 등 두 가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신청서에는 계획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예상이익과 비용, 공적 또는 사적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현재 본인이 재정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원자는 이러한 신청서의 작성을 컨설턴트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위탁할 수도 있음.
- 작성된 신청서를 지역 RDS에 송부하면, 신청사와 구비서류의 간단한 첨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해당신청자가 자격조건에 적합성 여부를 간단하게 초기 서류심사로 진행.

■ 지원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초기 심사과정을 거친 신청서에 대해서 지역 RDS의 직원이 기술적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 신청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에는 프로젝트의 필요성, 프로젝트의 성과, 경제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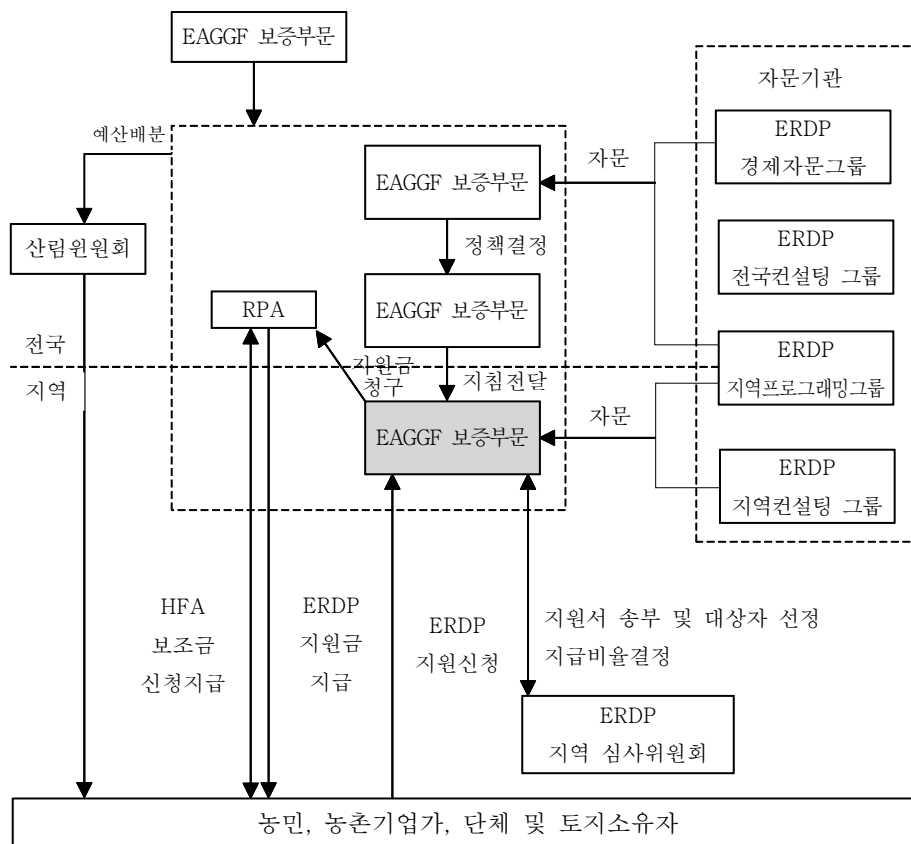
환경적·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넓은 의미에서 농촌발전정책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 재정적인 면에서의 생존 가능성과 위험도, 공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 여부, 프로젝트의 관리와 실행계획, 위험평가, 지역 농촌발전정책의 목표와의 정합성 여부, 공적 예산지원의 효율성 평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RDS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평가위원회 (Regional appraisal panel)에 송부.

■ 최종심사 및 결과통보

- 지역평가위원회는 지역 RDS의 대표, 지역 RDS의 농촌기업지원시책 담당자, 그리고 중앙부처 지역사무소의 관계자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서를 검토함.
- 송부된 평가보고서와 신청서를 기초로 지역평가위원회는 지원한 프로젝트가 지역 농촌발전정책의 목적과 사업분야에 적합한지, 예산계획이 타당한 지 등을 재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승인·거부·보류 등을 결정.
- 거부·보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거부·보류된 이유를 적시한 문서를 보내며, 때로는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권고하기도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돕는 기관들을 소개하거나, 사업에 「토지계획법」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허가신청서를 보내기도 함
- 승인된 프로젝트는 지역평가위원회 명으로 '지원승인서류'를 송부하며, 이 서류에는 프로젝트의 운영과 정책적 지원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됨.
 - 승인서류에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비용의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고, 또 지원자가 받는 총지원 금액과 지원비율이 명시되는데, 이는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분기별 액수를 기초로 계산되어 있음.
 - 서류에 제시된 분기별 지출계획에 따라 사업은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
 - 만약 분기별 지출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RDS 담당자와 논의해야 하며, 사전논의 없이 변경된 지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음.
- 이와 함께 승인서류에는 신청자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와 단계별 성과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승인 당시 신청자와 논의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에 그 달성여부가 기록되어야 함.
- 만약 합의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이 유예되거나 또는 거부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음.



[그림 4-3]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시행체계

■ 모니터링 과정

-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보조금 지급신청과 연계되어 이루어짐. 모니터링은 지원승인서류에 기록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일반 모니터링과 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분기별 모니터링은 지원자가 작성해서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분기별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해진 항목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단계별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함.

-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경우 모니터링은 지원금의 마지막 15%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원승인서류에 기록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 RDS의 담당자가 반드시 현장방문을 실시.
- 사후 모니터링은 지원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프로젝트를 지원한 후 그 사업의 지속성과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임.

4) 시사점

- 산업적인 의미에서의 농업정책이 아닌 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농촌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연합(EU)의 농촌발전정책은 1998년 구조기금의 개혁에 의해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에도 구조기금 정책의 하나인 목적5b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촌발전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연합(EU)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각 회원국 및 지역차원에서의 역량미비로 지역별로 차별적인 추진체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농촌발전정책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초기 5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지역 주도 정책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유럽연합(EU) 구조기금정책의 발전과정에서 CAP이 「아젠다 2000」 개혁을 계기로 농촌발전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일정부분 지역중심의 정책시행체계에서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시행체계로 변화되었지만,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 중 사업기준지원시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표를 형성·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유럽연합(EU)나 잉글랜드의 농촌발전정책 정책 실시체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농업정책에서 농촌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지역적 추진체계의 형성임. 잉글랜드의 경우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

역별로 분권적인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실시가 가능했음. 그러나 아직 행정체계 중심의 예산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계획과 추진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지방행정기관과 독립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가능한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농촌발전추진기관들과 인근의 여러 지자체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운영하는 지역추진체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역추진체계의 책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은 단지 예산지원범위만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쳐야 하며 세세한 지원조건이나 규정을 적용해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둘째, 지역 내 전문가그룹의 육성과 참여임. 잉글랜드 농촌발전정책 실시체계의 장점이자 단점은 많은 지역단체들이 정책의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실시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임. 이로써 발생하는 실시체계의 복잡성이 최근 개편논의의 중심주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의존적 또는 중심적인 정책시행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시행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전문가그룹의 육성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임. 잉글랜드처럼 보조금의 지급과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내에서 발전계획에 따라 시행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5. 스위스

1) 일반현황

(1) 개요

- 스위스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2/3가 알프스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로서 4만 1284km² 면적에 약 733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음.
- 수도는 베른이고, 언어는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레토-로만어 등이 사용되고 있음.
-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남쪽으로 이탈리아,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고 있음.



[그림 5-1] 스위스 지도

(2) 자연현황

- 스위스는 지형에 따라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쥐라산맥 지역, 중앙저지(스위스 고원) 지역, 알프스산맥 지역의 3지역으로 구분됨.
- 쥐라산맥은 남쪽의 알프스산맥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으며, 주로 중생대의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습곡산지임. 쥐라산맥 지역은 농업과 임업이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겨울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시작된 시계공업이 지금은 스위

스의 대표산업이 되었음.

- 북쪽의 쥐라와 남쪽의 알프스의 두 산지에 낀 중앙저지는 습곡작용을 그다지 받지 않은 곳이며 주로 제3기층으로 된 해발고도 300~800m의 완만한 구릉성 지역으로 레만·뇌샤텔·취리히 등의 대도시가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임.
- 중앙저지의 남쪽은 스위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프스산맥 지역임. 알프스는 론강(江) 및 라인강(江) 상류의 동서 방향으로 된 계곡에 의하여 당뒤미디(3,257m)·융프라우(4,158m)·핀스터아르호른(4,274m) 등을 포함한 북(北)알프스와 프랑스·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몽블랑(4,807m)·마티호른(4,478m)·몬테로사산(4,634m) 등을 포함한 남(南)알프스로 양분됨.

(2) 경제

-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 데다 산이 많고 농지가 적으며, 이렇다 할 지하자원도 별로 없음. 하지만 국민총생산은 자본주의국가 중 상위그룹에 속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442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에 속함.
- 주요수출품은 기계금속제품·화학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농림산물·석유·기계 등으로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 고도의 완성품을 수출하는 선진국형 무역으로 되어 있음. 스위스는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세계 최저에 속하며, 수입제한도 없고 통화·외환 등의 제한도 없음. 인구당 무역액이 많고 국내 생산품의 1/3이 수출되는데 그 대부분이 가공품임.
- 무역수지의 적자는 관광·수송·해외투자이자 등의 수입으로 메울 수 있고, 또 외자(外資)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스위스프랑은 국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통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3) 교통

- 프랑스의 철도 총연장은 4,492km이며, 도로 총연장은 7만 1059km로 모두 포장되어 있음.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수로의 총연장은 65km임.
- 알프스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곳에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생고타르터널은 길이 15km, 생플롱터널은 19.8km임.
- 1931년에 창립된 반관반민의 스위스항공(SA)은 세계 각지에 항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은 취리히·제네바·바젤 등에 있음.

[산악열차]



[산악 케이블카]



[그림 5-2] 스위스의 교통수단

(4) 관광

-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루체른호(湖)·브리엔츠호·마조르호·루가노호 등의 호수와 루체른·인터라켄·로잔·로카르노·루가노 등의 호반도시를 들 수 있음. 또 하나의 관광 중심은 산악으로 마터호른 산록의 체르마트, 엥가딘의 장크트모리츠, 다보스 등의 휴양지가 유명함
- 관광수입은 무역수지의 적자를 메우고, 경제를 윤택하게 해주므로 교통기관의 정비, 8,000개에 이르는 숙박시설, 400명이 넘는 가이드의 교육, 산막(山幕)의 정비 등에 투자되고 있음. 여름의 알피니스트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동계(冬季) 스포츠를 위해서도 철도에서 분기하는 많은 등산철도와 리프트가 부설되어 있음. 2000년 관광수입액은 227억 프랑으로 국민소득의 5.6%에 해당함.

[알프스의 전경]



[스위스 전원풍경]



[그림 5-3] 스위스의 관광자원

2) 제네바의 개요

- 인구규모 약 17만 5000명의 제네바는 취리히와 바젤 다음가는 스위스 제3의 도시이며 가장 국제화 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임.
- 시가지에는 서유럽 호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레만호수(Lac Lemman)에 자리 잡고 있음.

[레만호수 전경]



[레만호수 주변 공원]



[그림 5-4] 제네바의 전경

- 서쪽은 쥐라산맥, 남쪽에는 몽블랑산(4,807m)을 중심으로 하는 사브와알프스가 가까이 있으며 관광지인 동시에 각종 국제기관이 모여 있어 국제회의가 자주 열림
- 제네바에는 유엔유럽본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유니세프, 유럽경제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국제노동기구, 관세무역일반협정,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 등 매우 많은 국제기구가 입지해 있음.
- 스위스의 남서부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위스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지나고, 시 북서쪽 5km 지점에는 크왕트랭 국제공항이 있어 스위스 서쪽 교통의 요충지임.
- 시가지는 론강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좌안의 구릉지에 구시가지가 있음. 그 중심은 12~14세기에 건립된 생 피에르교회이며, 청동 첨탑을 시내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음. 구시가지에는 골동품상과 화랑 등이 있으며, 작은 분수와 처마마다 매달린 등에서 중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시의 남부에는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고, 1559년 종교개혁자 J.칼뱅이 선교사 양

성을 위해 창설한 뒤 1872년에 종합대학이 된 제네바대학이 있음

- 우안의 신시가지에는 국제연맹의 본부였던 팔레테나시옹이 있으며(현재는 국제연합 유럽본부 UN), 이를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ILO)·세계보건기구(WHO)·국제적십자본부·국제통신연합 및 유럽 핵연구소 등이 있음.
- 주요 산업은 시계·보석 정밀기계·화학약품·담배 등의 제조업이며 특히, 시계공업은 스위스가 발상지로 1587년 이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 산업임.



[그림 5-5] 제네바 시가지



[그림 5-6] 제네바의 도심공원

6. 오스트리아

1) 일반현황

(1) 개요

- 오스트리아는 8만 3871km²면적에 약 805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음. 수도는 빈이고 공용어로 독일어를 사용함
- 빈 북쪽은 체코, 동쪽은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은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은 스위스와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그림 6-1] 오스트리아 지도

(2) 자연환경

-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2/3가 동(東)알프스의 산지이며, 동서로 길게 뻗은 골짜기(인강·잘차흐강·엔스강·드라바강·무르강·뮌츠강)에 의해서 산지가 크게 북(北)알프스·중앙알프스·남(南)알프스 3지대로 구분됨
- 최고봉은 중앙알프스의 호에타우에른산맥의 그로스글로크너산(3,798m)임. 석회암 알프스는 험준한 데다 암벽이 노출되어 험한 산릉(山陵)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의 설선(雪線)은 거의 2,700~2,900m이며 그보다 높은 곳은 두꺼운 빙하(氷河)로 뒤덮여 있음.
- 알프스 산중에는 U자곡·현곡(懸谷)·빙하호 퇴석(堆石)·양배암(羊背岩) 등 각

양각색의 빙하지형이 빙하기(氷河期)의 유물로서 남아 있음.

(3) 경제

- 오스트리아의 주요산업은 제철업, 금속가공업, 관광산업임. 오스트리아 경제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대의 특색은 자본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국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 국토의 45%(386만ha)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업은 오스트리아의 중요산업 가운데 하나이며, 세계 6위의 침엽수목재 수출국으로서 대부분(85%)을 수출하고 있음.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외의존형 구조로서, 무역면에서 EFTA 국가들과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2000년의 무역실적은 수출 617억 5000만 달러, 수입 680억 10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국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국가들로서 전체의 62.6%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독일이 34.8%를 차지함. 주요 수입국은 역시 EU 국가들로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그중 독일이 41.7%를 차지.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전기 제품, 기계, 철강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전기제품, 기계, 섬유제품 등임.

(4) 관광

- 오스트리아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해마다 늘어 이에 의한 외화수입이 국제수지 적자를 메워주고 있음. 알프스산맥이 동서로 국토를 길게 관통하고 있어 예로부터 산악관광이 발달하여왔음
- 1999년 현재 숙박업·요식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의 4.7%를 차지한다. 관광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6.4%로 EU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임.

(5) 교통

- 오스트리아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고, 특히 도나우강(江)의 수상교통은 일찍부터 발달하였음.

- 철도는 동부 지방에 발달해 있으며 반 정도는 전철화(電鐵化)되어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로교통이 급격히 발달하여 빈~잘츠부르크~인스부르크에서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었음.
- 철도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알프스 지방에서는 등산전차·리프트·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발달되어 있음.
- 빈을 비롯한 6개 주요도시에 공항이 있고 국영오스트리아항공회사(AUA)가 국내 및 유럽 여러 나라에 취항하고 있음

2) 인스부르크 개요

-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州)의 주도(州都)로서 약 11만명이 거주하며 인강(江)이 시가지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데서 도시명이 유래되었음.
- 이탈리아에서 브레너 고개를 경유하여 독일로 이어지고 또 스위스에서 서부 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무역로의 교차점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 로마시대부터 동부 알프스의 교통요지로서 발전하였음.

[시가지 전경]



[시내를 관통하는 인강]



[그림 6-2] 인스부르크 시가지 전경

- 구시가지는 이미 12세기에 건설되었으며, 15세기에는 지방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음. 당시 이곳에 거소(居所)를 두었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건조한 '황금의 지붕'은 지금도 시의 상징임. 이외에도 옛 도시에 있는 좁은 가로들의 양옆에는 중세 주택들과 상가들이 늘어서 있음.

- 인스부르크는 중앙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와 보양지이자 겨울 스포츠 중심지임. 이곳에서 동계 올림픽 대회가 1964년과 1976년에 개최되었음.
- 철도 교차점이자 시장 중심지인 이곳의 산업으로는 식품가공업과 금속세공업, 그리고 직물·신발·맥주·음악기기 제조업 등이 있음.
- 그 밖에 막시밀리안 1세의 묘비가 있는 호프킬헤교회, 1677년 설립된 대학, 페르디난트 박물관, 민예관(民藝館), 고산식물원 등이 있음.



[그림 6-3] 인스부르크 황금지붕



[그림 6-4] 인스부르크 구시가지